

2007년도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보고서

2008. 1.

박상규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재단
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목 차

I. 조사 개요	1
① 조사 목적	2
② 조사 설계	2
③ 조사 내용	3
④ 응답자 특성	4
II. 조사 결과 요약	5
III. 조사 결과 분석	22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23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23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25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및 위험성 인지경로	27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29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29
③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31
1.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용정보 접촉	31
2.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구입 경험	33
3.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 모니터링 인식도	35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	37
1. 10대 청소년의 마약류문제 노출 차단방안	37
2. 약물남용예방교육을 처음 받은 시점	39
3. 최근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41
4. 약물남용예방교육 종류별 효과	43
5.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47
6. 마약류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49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51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51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53
⑥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55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55
2.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57
3.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자원봉사 참여의사	59

첨부 1. 조사설문지

Contents

| 조사개요

① 조사목적

② 조사설계

③ 조사내용

④ 응답자 특성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10대 학교 청소년 2,39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그리고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추진

2. 조사 설계

세부 조사 설계	
①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하 학교 청소년남녀
②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③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조사(Self Entry)
④ 표본추출	● 학제별 학년별 층화후 지역별 대상학교 무작위 추출
⑤ 응답자 선정	● 대상학교 학년별 표집 학생 무작위 추출
⑥ 유효표본	● 총 2,390명
⑦ 조사시점	● 2007년 12월 5일 - 12월 27일
⑧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박상규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3. 조사 내용

평가 항목	'07년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정도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 마약류 사용 경험	○
○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정보 접촉 가능성	○
○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입 경험	○
○ 마약퇴치운동본부 인터넷 모니터링 인식도	○
○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차단방안	○
○ 약물예방교육(처음 시점, 최근 교육여부, 효과적인 교육종류)	○
○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및 주장에 대한 의견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	○

4.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2390	100.0
성	남자	1370	57.4
	여자	1018	42.6
	무응답	2	.0
연령	9세-12세	766	32.1
	13세-15세	787	32.9
	16세-19세	811	33.9
	무응답	26	1.1
지역	서울	470	19.7
	부산/경남/울산	200	8.4
	대구/경북	341	14.2
	인천/경기/강원	631	26.4
	광주/전라	435	18.2
	대전/충청	313	13.1
도시규모	대도시	1312	54.9
	중소도시	1020	42.7
	군지역	58	2.4
학년	초등학생	752	31.5
	중학생	794	33.2
	인문계고	596	24.9
	전문계고	248	10.4
학급성적	매우 못함	117	4.9
	못하는 편	458	19.2
	보통	1034	43.3
	잘 하는 편	406	17.0
	매우 잘함	132	5.5
	무응답	243	10.2
현재 흡연 여부	전혀 아님	2197	92.0
	하루 1-5개비	105	4.4
	하루 6-10개비	20	.8
	하루 11-19개비	26	1.1
	하루 한 갑 이상	28	1.2
	무응답	14	.6
현재 음주 여부	전혀 아님	1976	82.7
	한 달 1-2회	339	14.2
	일주일 1-2회	39	1.6
	거의 매일	26	1.1
	무응답	10	.4
현재 동거자	부모와	2166	90.6
	아버지하고만	46	1.9
	어머니하고만	71	3.0
	친척 등과	35	1.5
	쉽터 등	9	.4
	기타	39	1.6
	무응답	24	1.0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15	9.0
	보통	1413	59.1
	부유함	522	21.9
	무응답	240	10.0

II 조사결과 요약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가. 사회적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학교 청소년의 24.9%는 ‘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2%인 것으로 조사됨.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07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4.9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40.7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27.3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7.2

나. 개인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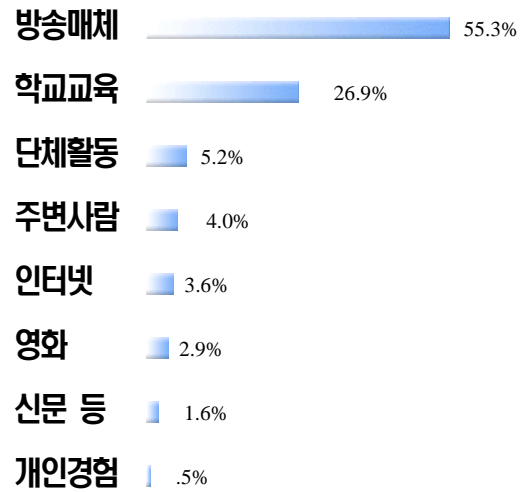
-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10명 중 3명(29.1%)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3.7%로 나타남.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2007년(%)
매우 심각하다	29.1
다소 심각하다	45.5
별로 심각하지 않다	21.7
전혀 심각하지 않다	3.7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 및 위험성 인지경로

□ 학교청소년 절반 정도(55.3%)는 ‘방송매체’를 통해, 그리고 4명 중 1명(26.9%)은 ‘학교교육’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인천/경기/강원(32.9%), 광주/전라(32.6%), 9-12세(35.7%), 초등학생(36.1%), 현재 음주하지 않은 집단(27.7%)에서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

-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진통제’(18.1%)를 1순위로 응답. 그 다음으로 ‘신경안정제, 수면제’(4.9%), ‘살 빼는 약’(3.1%), ‘머리 좋아지는 약’(2.7%), ‘환각흡입물질’(2.4%), ‘각성제(잠 안 오는 약)’(2.3%), ‘근육을 키우는 약’(1.8%) 순으로 나타남.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률(%)	2007년
가. ‘진통제’	18.1
나. ‘신경안정제, 수면제’	4.9
다. ‘살 빼는 약’	3.1
라. ‘머리 좋아지는 약’	2.7
마. ‘환각흡입물질’	2.4
바. ‘각성제(잠 안 오는 약)’	2.3
사. ‘근육을 키우는 약’	1.8
아. ‘대마초’	0.4
자. ‘마약(히로뽕, 헤로인 등)’	0.3

- ‘진통제’ 사용경험은 여성(19.6%), 대전/충청(24.0%), 광주/전라(23.4%), 학급성적이 낮고,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 그리고 현재 흡연하는 집단과 현재 음주하는 집단에서 높았음.
- ‘살 빼는 약’ 사용경험은 여자(4.4%), 대전/충청(3.8%), 광주/전라(4.1%), 연령이 높을수록,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에서 높았음.
- ‘머리 좋아지는 약’ 사용경험은 남자(3.0%), 대전/충청(4.5%), 광주/전라(3.2%), 9-12세(4.1%), 학년이 낮을수록, 최근 예방교육 받지 않은 집단(3.1%),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5.6%)과 부유한 집단(4.0%)에서, 그리고 현재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 높았음.
- ‘환각흡입물질’ 사용경험은 남자(2.9%), 대전/충청(6.7%), 초등학생(3.9%),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4.2%), 현재 음주 집단과 현재 흡연 집단에서 높았음.

3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1. 인터넷을 통한 유해약물 정보 접촉 가능성

-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10명 중 약1명 정도(7.9%)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담배, 술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을 통한 유해 약물 접촉 가능성	2007년(%)	
항상 접하는 편	1.6	7.9
접하는 편	6.3	
접한 적 거의 없음	16.8	91.4
접한 적 없음	74.6	
무응답	0.7	0.7

-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급성적이 나쁠수록, 현재 음주를 할수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용을 권하는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높았음.

2.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구입 경험

- 우리나라 10대 학교청소년들의 대부분(95.6%)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전라(6.1%), 16-19세(5.0%), 전문계고(7.3%), 학급성적 낮음(5.0%), 그리고 현재 음주를 할수록,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경험이 높게 나타남.

인터넷을 통한 유해 약물 구입 경험	2007년(%)
있음	3.1
없음	95.6
무응답	1.3

3.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 모니터링 프로그램 인식도

-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9명 중 1명 정도(12.6%)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인터넷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하고 있는 사람 10명에 9명 정도는 공모 등에 응모한 적이 있다고 함.

모니터링 프로그램 인식도	2007년(%)	
알고 있으며 응모 경험	1.4	} → 12.6
알고 있으나 응모한 적 없음	11.2	
모른다	87.1	87.1
무응답	0.2	0.2

- 서울(2.6%), 초등학생(2.0%), 학급 성적 우수(2.8%), 가정경제 부유함(2.7%) 그리고 현재 흡연하고 있고 현재 음주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을 알고 응모한 경험이 있었음.

- 이에 반해, 광주/전라(13.6%), 13-15세(13.3%), 중학생(14.6%),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13.7%), 가정경제 부유함(13.9%) 그리고 현재 흡연하고 있고 현재 음주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을 알기만 한 것으로 보임.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

1.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차단 방안

-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마약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체제 운영’(26.7%)이나 ‘강력한 단속’(1.7%) 보다 ‘학교의 정규교과과정’(39.7%)과 ‘학부모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함.
- 특히 ‘학교정규 교과정화’의 경우, 여자(46.4%), 부산/경남/울산(57.1%), 9-12세(48.5%),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44.3%), 학년이 낮을수록, 현재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과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 내용	%
학교에서의 약물예방교육 정규교과 과정	39.7
인터넷을 통한 감시체제 운영	26.7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18.8
10대들 자율적으로 말끔	9.3
강력한 단속	1.7
기타(직접 폐해 인식, 전국적 TV방송 등)	0.7
무응답	3.1

- 마약류 문제 노출대처방안 중 ‘학교 정규교과정화’ 및 ‘부모 교육의 무화’와 같이 예방교육을 통한 접근을 바라는 집단이 ‘인터넷 감시체제’나 ‘10대 자율에 맡김’과 같은 강제와 방임보다는 마약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더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개인적 인식도 비슷한 결과를 보임.

2. 약물남용 예방교육 여부

가. 처음 받은 시점

-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9명(87.2%)이 학교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초등학교’(47.9%), ‘중학교’(35.6%) 순이었음.
-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중학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처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점점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시작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응답내용	2007년(%)	
초등학교	47.9	} 87.2
중학교	35.6	
고등학교	3.7	
교육 받은 적 없음	12.6	12.6
무응답	0.2	0.2

나. 최근 교육 여부

-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6명(58.3%)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63.7%), 인천/경기/강원(63.4%), 9-12세(72.4%), 초등학생(73.0%), 가정 경제 부유함(64.3%), 그리고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내용	2007년(%)
있다	58.4
없다	41.3
무응답	0.4

다. 약물남용예방교육 종류별 효과성

-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 ‘비디오 교육’(36.4%), ‘외부전문가 강의’(29.1%), ‘실험교육’(26.2%), ‘약물관련 상담’(21.3%), ‘선생님 훈화’(20.1%) 순으로 응답함.
- 특히 ‘비디오 교육’의 경우, 서울(49.0%),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44.8%),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예방교육 종류별 효과성		2007년(%)	
비디오 교육	매우 도움	10.5	36.4
	도움	25.9	
외부전문가 강의	매우 도움	9.4	29.1
	도움	19.7	
실험교육(취 등)	매우 도움	9.5	26.2
	도움	16.7	
약물관련 상담	매우 도움	5.5	21.3
	도움	15.8	
선생님 훈화	매우 도움	4.5	20.1
	도움	15.6	
캠페인활동 참여	매우 도움	5.4	18.7
	도움	13.3	
약물예방토론	매우 도움	3.6	16.8
	도움	13.2	
포스터 등 공모전	매우 도움	2.8	14.1
	도움	11.2	
약물예방글짓기	매우 도움	2.4	12.1
	도움	9.7	
기타	매우 도움	0.5	1.3
	도움	0.7	

3.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9명(92.1%)이 친구들의 마약류 및 약물 사용 유혹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함.
- 9-12세(94.4%), 초등학생(94.5%), 학급성적 우수(95.7%),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93.6%)에서 ‘친구의 유혹에도 거절하기 어렵지 않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마약류 및 남용약물을 접하지 않은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봄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2007년(%)	
전혀 어렵지 않음	70.0	} → 92.1
별로 어렵지 않음	22.1	
어려운 편임.	5.6	} → 7.7
매우 어려움	2.1	
무응답	0.3	0.3

4. 마약류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 10대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9명(88.6%)이 “10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해 보는 것은 정상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호기심으로 시험삼아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2007년(%)	
전혀 동의하지 않음	57.7	} → 88.6
별로 동의하지 않음	30.9	
대체로 동의.	9.0	} → 10.9
전적으로 동의	1.9	
무응답	0.5	0.5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의 접촉도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예방교육/ 캠페인’ 접촉도가 31.4%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된 통로가 ‘방송매체’(54.8%), ‘학교 교육’(26.6%)와 ‘민간단체 활동’(5.1%)라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37.3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31.4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3.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3.1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2.4

- ‘대중매체’의 경우, 인문계고(52.9%), 16-19세(46.1%), 대구/경북(40.5%), 학급성적 우수(43.5%)에서 상대적으로 접촉도가 높았고,
- ‘교육/캠페인’의 경우, 광주/전라(34.5%), 초등학생(35.1%),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39.4%),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접촉도가 높았고, 특히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과 음주하지 않는 집단이 하는 집단보다 접촉도가 높았음.
- ‘홈페이지’의 경우, 광주/전라(5.7%), 초등학생(5.6%), 9-12세(5.4%)에서 접촉도가 높았으며, ‘예방 상담’의 경우, 광주/전라(6.0%), 가정경제 어려움(4.6%),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접촉도가 높았음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10대 학교 청소년의 52.6%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을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그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22.5%),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4.7%), ‘마약류 연구사업’(6.7%) 순으로 응답함.

응답 내용	%
마약류 예방 홍보나 교육사업	52.6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22.5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사업	14.7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6.7
기타	0.2
무응답	3.3

-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향후 ‘마약류 예방을 위해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자(58.7%), 광주/전라(57.7%),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과 음주하지 않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6.7%), 대구/경북(18.4%), 연령이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함.

6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 시간 배당’(36.7%)을 1순위로 꼽아,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다음으로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26.0%),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22.3%),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12.6%)의 순으로 확산 방지 방안을 제시함.

응답 내용	%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36.7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22.3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26.0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	12.6
기타	0.5
무응답	1.9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방안으로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광주/전라(43.3%), 학급성적이 낮을수록, 최근 예방 교육을 받은 집단(39.1%)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처벌 강화’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남성(27.7%), 인천/경기/강원(28.3%), 학년이 높을수록,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현재 음주하지 않는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남(교육시간 배당’(각각 36.9, 34.5%)을 1순위로 제시함.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10대 학교 청소년 대다수(88.4%)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매우 필요하다’ : 37.8%
 - ‘대체로 필요하다’ : 50.6%

-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의 응답내용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확산 방지 방안’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 특히,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을 체감하는 집단일수록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3.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에 자원봉사 참여 의사

- 10대 학교 청소년의 4할 정도(41.7%)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자원봉사자로 참여 의사	2007년(%)	
매우 그렇다	7.2	} —▶ 41.7
그런 편이다	3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3	} —▶ 57.1
전혀 그렇지 않다	20.8	
무응답	1.3	1.3

7 총 평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10대 학교 청소년의 4명 중 1명(24.9%)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7.2%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10대 학교 청소년의 10명 중 3명(29.1%)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청소년 절반 정도(55.3%)는 ‘방송매체’를 통해, 그리고 4명 중 1명(26.9%)은 ‘학교교육’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남자, 고학년일수록(중, 고등학교), 대구/경북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예방이 필요함.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사용 경험이 있는 마약류 및 남용약물로는 ‘진통제’(18.1%)를 1순위로 응답. 그 다음으로 ‘신경안정제, 수면제’(4.9%), ‘살 빼는 약’(3.1%), ‘머리 중아지는 약’(2.7%), ‘환각흡입물질’(2.4%), ‘각성제(잠 안 오는 약)’(2.3%), ‘근육을 키우는 약’(1.8%) 순으로 나타남.



합법적인 약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고, 그들의 사용형태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약물들에 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함

3.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들의 10명 중 약1명 정도(7.9%)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담배, 술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10대 학교청소년들의 대부분(95.6%)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학교 청소년들의 9명 중 1명 정도(12.6%)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인터넷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하고 있는 사람 10명에 9명 정도는 공모 등에 응모한 적이 있다고 함.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유통이 확산되고 점점 더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인식 및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

-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마약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 체제 운영’(26.7%)이나 ‘강력한 단속’(1.7%) 보다 ‘학교의 정규교과과정’(39.7%)과 ‘학부모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함.
- 학교 청소년들 10명 중 약9명(87.2%)이 학교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초등학교’(47.9%), ‘중학교’(35.6%) 순이었음.
- 또한 10명 중 약6명(58.3%)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 ‘비디오 교육’(36.4%), ‘외부전문가 강의’(29.1%), ‘실험교육’(26.2%), ‘약물관련 상담’(21.3%), ‘선생님 훈화’(20.1%) 순으로 응답함.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마약류 노출 차단을 선호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약물남용예방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교과과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접촉도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예방교육/ 캠페인’ 접촉도가 31.4%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된 통로가 ‘방송매체’(54.8%), ‘학교 교육’(26.6%)과 ‘민간단체 활동’(5.1%)이라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 10대 학교 청소년의 52.6%는 향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을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22.5%),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4.7%), ‘마약류 연구사업’(6.7%) 순으로 응답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활동에 대한 접촉도가 높아 예방사업(교육 및 홍보)을 중심축으로 하고 치료재활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7%)을 1순위로 꼽아,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10대 학교 청소년 대다수(88.4%)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4할 정도(41.7%)만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자원봉사자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마약류 활동 참여에 대한 벽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노력이 필요함.



청소년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를 찬성하고 있어,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마약류 예방활동 참여에 대한 벽을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III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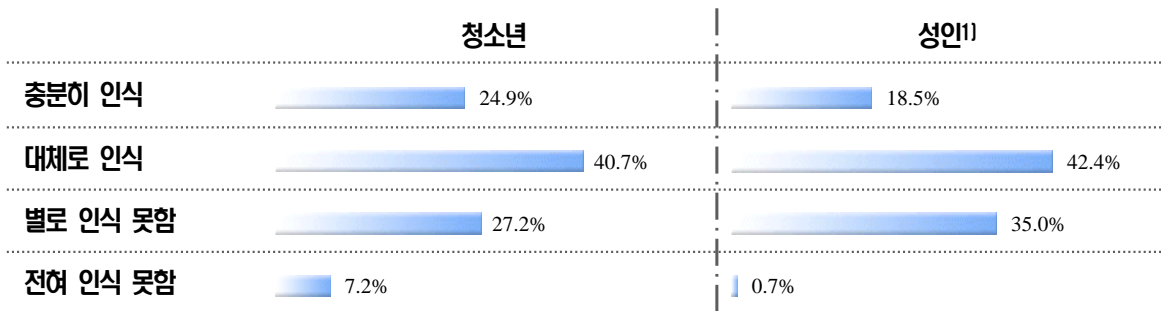
-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③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
-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⑥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학교 청소년 4명 중 1명(24.9%)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성인과 비교하면, 청소년의 경우 ‘충분히 인식’이나 ‘전혀 인식 못함’과 같은 양극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청소년 및 성인 비교 >



- 마약류의 사회적 위험성을 높이 인식할수록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개인적 심각성 인식(%) 사회적 위험성 인식(%)	심각	비 심각
	인식	81.1
비 인식	62.3	37.7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81.1%로 나타나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개인적 심각성 인식(%) 사회적 위험성 인식(%)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충분히 인식	47.0	37.2	12.3	3.5
대체로 인식	27.2	52.1	19.1	1.6
별로 인식 못함	17.5	49.5	31.1	1.1
전혀 인식 못함	22.2	22.2	32.7	22.8

1) 2007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 보고서

2) $\chi^2 = 100.346, df=1$ 유의도 .000 $r = .205$, 유의도 .000 / $\chi^2 = 390.683, df=9$ 유의도 .000 $r = .275$,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10대 친구들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서울(71.4%), 대전/충청(67.5%), 인천/경기/강원(67.1%)에서 높게 공감하고 있음.
-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최근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산/경남/울산(55.5%), 대구/경북(59.5%)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사회적 인식		사례 수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하지 못함	전혀 인식하지 못함	인식	비인식
전체			24.9	40.7	27.2	7.2	65.6	34.4
성 ³⁾	남자	1,370	28.3	37.6	26.1	8.0	65.9	34.1
	여자	1,018	20.1	44.9	28.9	6.1	65.0	35.0
지역 ⁴⁾	서울	470	28.9	41.5	21.5	8.1	71.4	29.6
	부산/경남/울산	200	21.0	34.5	36.5	8.0	55.5	44.5
	대구/경북	341	17.0	42.5	33.1	7.3	59.5	40.4
	인천/경기/강원	631	24.6	42.5	26.8	6.2	67.1	33.0
	광주/전라	435	27.1	39.1	26.0	7.8	66.2	33.8
연령 ⁵⁾	대전/충청	313	27.2	40.3	26.5	6.1	67.5	32.6
	9-12세	766	29.8	39.8	24.2	6.3	69.6	30.5
	13-15세	787	23.1	44.3	25.7	6.9	67.4	32.6
	16-19세	811	21.9	38.2	31.8	8.0	60.1	39.8
학년 ⁶⁾	무응답	26	23.1	34.6	26.9	15.4	57.7	42.3
	초등학생	752	30.3	40.4	23.1	6.1	70.7	29.2
	중학생	794	23.4	43.5	25.7	7.4	66.9	33.1
	인문계고	596	20.0	39.6	33.2	7.2	59.6	40.4
학급성적 ⁷⁾	전문계고	248	24.6	35.5	30.6	9.3	60.1	39.9
	못함	575	25.2	37.7	26.6	10.4	62.9	37.0
	보통	1034	22.6	42.9	28.3	6.1	65.5	34.2
	잘함	538	23.0	41.4	29.2	6.3	64.4	35.5
최근 교육여부 ⁸⁾	무응답	243	37.4	36.6	20.2	5.8	74.0	26.0
	있음	1394	28.1	43.0	24.4	4.5	71.1	28.9
가정 경제상태 ⁹⁾	없음	986	20.4	37.5	31.4	10.6	57.9	42.0
	어려움	215	26.0	36.3	27.0	10.7	62.3	37.7
	보통	1413	21.6	42.7	29.2	6.4	64.3	35.6
	부유함	522	28.0	37.9	25.7	8.4	65.9	34.1
현재 흡연	무응답	240	36.3	38.8	19.6	5.4	75.1	25.0
	전혀 아님	2197	24.5	41.1	27.3	7.0	65.6	34.3
	하루 1-5개비	105	27.6	39.0	25.7	7.6	66.6	33.3
	하루 6-10개비	20	25.0	30.0	40.0	5.0	55.0	45.0
	하루 11-19개비	26	38.5	26.9	19.2	15.4	65.4	34.6
현재 음주	하루 한갑이상	28	17.9	42.9	25.0	14.3	60.8	39.3
	전혀 아님	1976	25.2	41.0	26.9	6.9	66.2	33.8
	한달 1-2회	339	22.4	40.1	29.2	8.3	62.5	37.5
	일주일 1-2회	39	20.5	35.9	33.3	10.3	66.4	43.6
	거의 매일	26	30.8	46.2	15.4	7.7	77.0	23.1

3) $\chi^2 = 29.084$, $df=6$ 유의도 .000

4) $\chi^2 = 36.498$, $df=15$ 유의도 .001

5) $\chi^2 = 34.737$, $df=12$ 유의도 .001

6) $\chi^2 = 35.729$, $df=9$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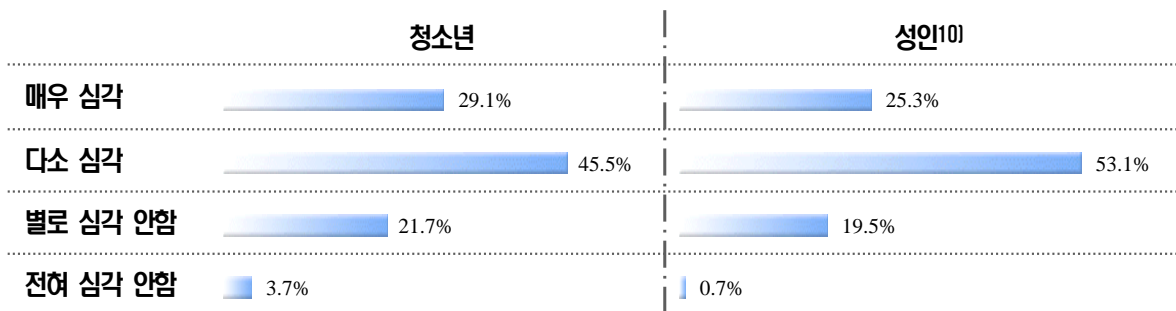
7) $\chi^2 = 39.081$, $df=9$ 유의도 .000

8) $\chi^2 = 59.323$, $df=3$ 유의도 .000 $r = .151$, 유의도 .000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 10대 학교 청소년들의 10명 중 3명(29.1%)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남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7%로 나타남.
- 성인과 비교하면, 청소년의 경우 ‘매우 심각’하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양극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성인에 비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인과 비교할 때, 사회적 인식은 성인보다 높게, 개인적 인식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기 또래집단 영향이 큰 발달기적 성격 때문으로 보임.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 청소년 및 성인 비교 >



9) $\chi^2 = 39.129$, $df=9$ 유의도 .000

10) 2007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 보고서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현재 음주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여성(77.5%), 광주/전라(83.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현재 더 심하게 음주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남성(72.4%), 대구/경북(57.1%)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개인적 인식		사례 수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하지 않음	전혀 심각 하지 않음	인 식	비인식
전 체			29.1	45.5	21.7	3.7	74.6	25.4
성 ¹¹⁾	남자	1,370	30.1	42.3	22.6	5.0	72.4	27.6
	여자	1,017	27.6	49.9	20.6	2.0	77.5	22.6
지역 ¹²⁾	서울	470	31.5	44.3	20.0	4.3	75.8	24.3
	부산/경남/울산	200	17.0	57.5	22.5	3.0	74.5	25.5
	대구/경북	341	11.4	45.7	38.4	4.4	57.1	42.8
	인천/경기/강원	631	32.5	44.2	19.7	3.6	76.7	23.3
	광주/전라	434	41.2	42.2	14.1	2.5	83.4	16.7
	대전/충청	313	28.8	47.0	20.0	4.2	75.8	24.2
연령 ¹³⁾	9-12세	765	43.8	40.4	13.2	2.6	84.2	15.8
	13-15세	787	25.5	50.4	20.6	3.4	75.9	24.0
	16-19세	811	19.1	45.9	30.3	4.7	65.0	35.0
	무응답	26	15.4	38.5	34.6	11.5	53.9	46.1
학년 ¹⁴⁾	초등학생	751	44.5	40.2	12.6	2.7	84.7	15.3
	중학생	794	27.1	49.1	20.3	3.5	76.2	23.8
	인문계고	596	13.4	48.3	32.9	5.4	61.7	38.3
	전문계고	248	26.6	43.5	26.6	3.2	70.1	29.8
학급성적 ¹⁵⁾	못함	575	26.1	42.3	26.3	5.4	68.4	31.7
	보통	1034	26.2	50.2	20.8	2.8	76.4	23.6
	잘함	538	28.8	43.9	23.8	3.5	72.7	27.3
	무응답	242	49.2	37.2	9.9	3.7	86.4	13.6
최근 교육 여부 ¹⁶⁾	있음	1394	28.1	43.0	24.4	4.5	71.1	28.9
	없음	986	20.4	37.5	31.4	10.6	57.9	42.0
가정 경제상태 ¹⁷⁾	어려움	215	33.0	39.1	23.3	4.7	72.1	28.0
	보통	1413	23.6	49.1	23.7	3.5	72.7	27.2
	부유함	522	32.4	42.7	21.3	3.6	75.1	24.9
	무응답	239	50.6	36.4	9.2	3.8	87.0	13.0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96	29.2	46.1	21.1	3.6	75.3	24.7
	하루 1-5개비	105	26.7	44.8	24.8	3.8	71.5	28.6
	하루 6-10개비	20	25.0	25.0	45.0	5.0	50.0	50.0
	하루 11-19개비	26	38.5	19.2	38.5	3.8	57.7	42.3
	하루 한갑이상	28	21.4	50.0	21.4	7.1	71.4	28.5
현재 음주 ¹⁸⁾	전혀 아님	1975	30.3	46.1	20.2	3.4	76.4	23.6
	한달 1-2회	339	23.9	44.0	28.6	3.5	67.9	32.1
	일주일 1-2회	39	12.8	48.7	30.8	7.7	61.5	38.5
	거의 매일	26	26.9	26.9	26.9	19.2	53.8	46.1

11) $\chi^2 = 24.642$, $df=6$ 유의도 .000

12) $\chi^2 = 140.782$, $df=9$ 유의도 .000

13) $\chi^2 = 165.326$, $df=12$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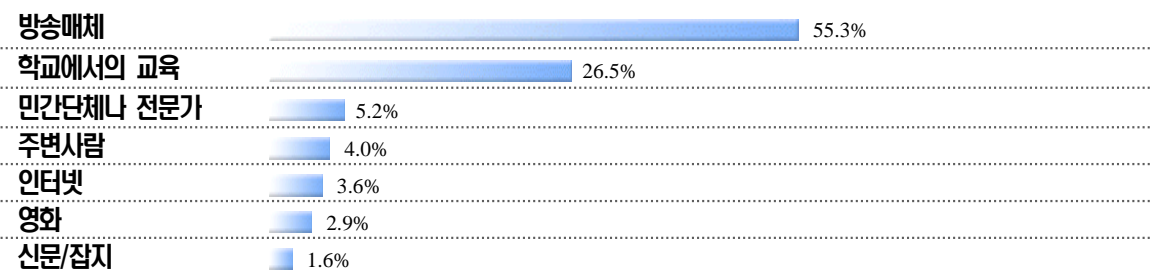
14) $\chi^2 = 194.330$, $df=9$ 유의도 .000 $r^2 = .217$, 유의도 .000

15) $\chi^2 = 77.854$, $df=9$ 유의도 .000 $r^2 = -.116$, 유의도 .000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및 위험성 인지경로

- 10대 학교 청소년의 절반(55.3%)은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어 4명 중 1명(26.5%)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은 ‘민간단체나 전문가의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5.2%), ‘주변사람을 통해서’(4.0%), ‘인터넷을 통해’(3.6%), ‘영화를 통해’(2.9%) 등의 순으로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혀 인터넷과 영화가 주요 수단 중의 하나임을 볼 수 있음.
-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피해를 인지한 응답자는 인천/경기/강원(32.9%), 광주/전라(32.6%), 9-12세(35.7%), 초등학생(36.1%), 현재 음주하지 않은 집단(2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 학교교육을 통한 위험과 심각성 인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민간단체를 통한 교육에서는 개인적 인식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인터넷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성 등을 인식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인지경로를 통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 >

사회적 위험성 인식(%) 인식 경로(%)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대중매체	22.5	<u>41.6</u>	29.1	6.8
학교교육	31.3	<u>42.7</u>	22.5	4.1
민간단체	21.3	<u>40.2</u>	31.1	7.4
인터넷	25.0	<u>36.9</u>	25.0	13.1

개인적 심각성 인식(%) 인식 경로(%)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대중매체	24.6	<u>49.1</u>	22.8	3.5
학교교육	38.2	<u>40.9</u>	19.9	2.0
민간단체	36.9	<u>37.7</u>	20.5	4.9
인터넷	27.4	<u>46.4</u>	17.9	8.5

16) $\chi^2 = 82.501$, $df=3$ 유의도 .000 $r^2 = .185$, 유의도 .000
 17) $\chi^2 = 87.622$, $df=9$ 유의도 .000 $r^2 = .121$, 유의도 .000
 18) $\chi^2 = 40.425$, $df=9$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폐해를 인지한 응답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최근 예방교육 받은 적이 없는 집단이, 가정경제 상태가 더 어려워질수록, 현재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부산/경남/울산(64.0%), 대구/경북(6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민간단체나 전문가의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폐해를 인지한 응답자는 학년이 낮아질수록, 학급성적이 높아질수록, 최근 예방교육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그리고 인천/경기/강원(32.9%), 광주/전라(3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인지 경로		사례 수	방송매체	신문잡지	학교교육	민간단체	개인경험	주변사람	인터넷	영화	기타
전 체			55.3	1.6	26.5	5.2	.5	4.0	3.6	2.9	.2
성 ¹⁹⁾	남자	1348	53.8	2.2	26.0	5.1	.4	5.0	3.6	3.6	.2
	여자	1016	57.4	.8	28.1	5.2	.6	2.5	3.5	1.9	.1
지역 ²⁰⁾	서울	465	57.0	1.7	27.3	3.7	.2	2.4	4.5	3.2	-
	부산/경남/울산	200	64.0	.5	16.5	3.5	.5	6.5	3.0	5.0	.5
	대구/경북	337	62.6	3.0	16.9	3.0	-	4.7	4.7	4.7	.5
	인천/경기/강원	627	50.4	1.6	32.9	6.9	.3	2.9	2.6	2.2	.5
	광주/전라	430	48.1	1.2	32.6	7.7	1.2	4.7	3.0	1.6	-
	대전/충청	307	59.3	1.0	23.8	3.9	1.0	5.2	3.9	2.0	-
연령 ²¹⁾	9-12세	761	48.5	1.7	35.7	4.9	.5	3.4	3.2	2.0	.1
	13-15세	780	53.2	1.7	25.5	5.3	.3	5.5	4.1	2.9	.3
	16-19세	800	65.6	1.4	19.8	5.4	.6	2.9	3.4	3.5	.1
	무응답	25	59.8	-	-						
학년 ²²⁾	초등학생	747	48.1	1.6	36.1	5.4	.5	3.5	2.8	1.9	.1
	중학생	786	53.2	1.9	26.1	4.8	.4	6.0	4.3	3.2	.1
	인문계고	587	65.6	1.5	18.9	3.7	.3	2.0	3.4	4.1	.3
	전문계고	246	59.8	1.4	20.3	8.9	1.2	3.7	3.7	2.0	-
학급성적	못함	569	59.9	1.2	23.4	3.5	.5	4.0	3.9	3.5	-
	보통	1028	57.3	1.5	26.3	4.7	.4	3.2	2.9	3.5	.3
	잘함	530	53.4	1.9	25.5	7.0	.4	4.9	4.7	2.1	.2
	무응답	239	40.2	2.1	41.0	7.1	1.3	5.0	2.9	.4	-
최근 교육여부 ²³⁾	있음	1383	47.6	1.4	35.0	6.1	.5	3.8	3.0	2.5	.1
	없음	973	66.6	1.8	15.2	3.8	.5	4.1	4.2	3.4	.3
	어려움	213	65.3	2.3	15.0	5.6	.5	2.8	4.7	3.8	-
가정경제상태	보통	1404	57.5	1.4	25.9	4.0	.5	3.6	3.6	3.1	.3
	부유함	513	52.0	1.6	27.9	7.2	.2	5.1	3.1	2.9	-
	무응답	236	40.3	1.7	41.1	7.2	1.3	5.1	3.0	.4	-
	전혀 아님	2176	56.3	1.7	26.7	4.7	.3	3.9	3.5	2.8	.2
현재 흡연 ²⁴⁾	하루 1-5개비	103	45.6	-	27.2	13.6	2.9	1.9	5.8	2.9	-
	하루 6-10개비	20	40.0	-	20.0	15.0	-	20.0	-	5.0	-
	하루 11-19개비	26	53.8	3.8	23.1	7.7	-	7.7	-	3.8	-
	하루 한 갑 이상	27	37.0	-	37.0	3.7	11.1	-	7.4	3.7	-
	전혀 아님	1958	55.4	1.6	27.7	5.0	.3	3.9	3.2	2.7	.2
현재 음주	한 달 1-2회	335	57.3	1.2	22.4	6.3	.6	3.3	5.4	3.6	-
	일주일 1-2회	38	42.1	2.6	21.1	5.3	7.9	7.9	7.9	2.6	-
	거의 매일	25	44.0	-	24.0	8.0	8.0	8.0	-	8.0	-
	전혀 아님	1958	55.4	1.6	27.7	5.0	.3	3.9	3.2	2.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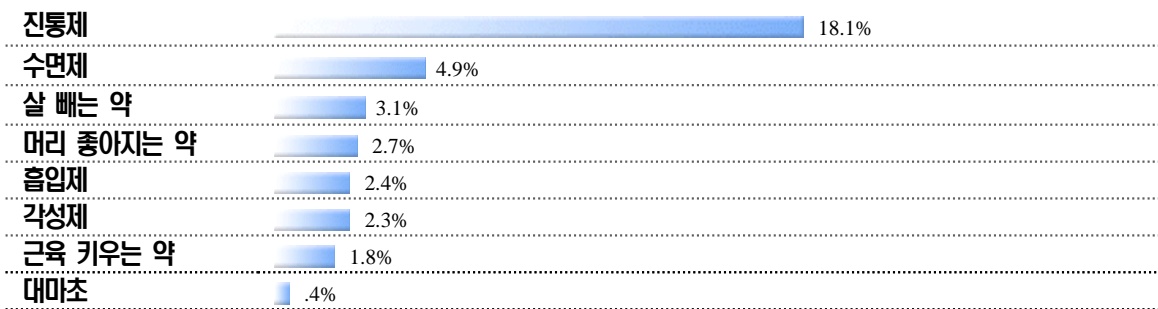
19) $\chi^2 = 37.415$, $df=16$ 유의도 .002
 20) $\chi^2 = 111.045$, $df=40$ 유의도 .000
 21) $\chi^2 = 90.567$, $df=32$ 유의도 .000
 22) $\chi^2 = 101.292$, $df=24$ 유의도 .000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실생활에서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진통제’(18.1%), ‘수면제’(4.9%), ‘살 빼는 약’(3.1%), ‘머리 좋아지는 약’(2.7%) 순으로 나타남.
- ‘환각흡입물질’(2.4%), ‘근육강화제’(1.8%)를 비롯해 ‘대마초’(4%)와 ‘히로뽕 등 마약’(3%)까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에 대한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마약류 및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 경험 >



- 불법성이 강한 마약류 쪽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마약류 위험성 및 심각성을 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머리 좋아지는 약’ 사용 경험집단에서 개인적인 심각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각흡입물질’ 사용 경험집단에서 사회적 위험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임

< 주요 사용경험 마약류를 통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 >

사회적 위험성 인식(%) 사용경험 마약류(%)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진통제	29.1	<u>38.1</u>	24.0	8.8
머리 좋아지는 약	20.3	<u>39.1</u>	23.4	17.2
살 빼는 약	12.0	<u>53.3</u>	28.0	6.7
환각흡입물질	25.9	<u>32.8</u>	31.0	10.3
개인적 심각성 인식(%) 사용경험 마약류(%)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진통제	32.8	<u>44.8</u>	17.8	4.6
머리 좋아지는 약	29.7	<u>39.1</u>	25.0	6.3
살 빼는 약	33.3	<u>41.3</u>	21.3	4.0
환각흡입물질	37.9	<u>36.2</u>	19.0	6.9

23) $\chi^2 = 133.278$, $df=8$ 유의도 .000

24) $\chi^2 = 123.466$, $df=32$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 ⇒ ‘진통제’는 여성(19.6%), 대전/충청(24.0%), 광주/전라(23.4%), 학급성적이 낮고,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 그리고 현재 흡연하는 집단과 현재 음주하는 집단에서 높았음.
- ⇒ ‘살 빼는 약’은 여자(4.4%), 대전/충청(3.8%), 광주/전라(4.1%), 연령이 높을수록,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에서 높았음.
- ⇒ ‘머리 좋아지는 약’은 남자(3.0%), 대전/충청(4.5%), 광주/전라(3.2%), 9-12세(4.1%), 학년이 낮을수록, 최근 예방교육 받지 않은 집단(3.1%),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5.6%)과 부유한 집단(4.0%)에서, 그리고 현재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 높았음.
- ⇒ ‘환각흡입물질’은 남자(2.9%), 대전/충청(6.7%), 초등학생(3.9%),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운 집단(4.2%), 현재 음주 집단과 현재 흡연 집단에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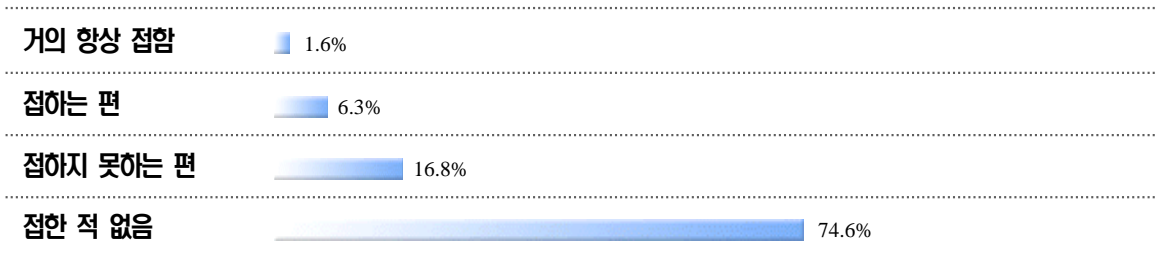
사용 경험 마약류(약물)		사례 수	진통제	수면제	머리 좋아지는 약	각성제	살 빼는 약	근육키우는 약	흡입제	대마초	마약
전 체			18.1	4.9	2.7	2.3	3.1	1.8	2.4	.4	.3
성	남자	1348	17.0	5.3	3.0	2.8	2.2	2.3	2.9	.7	.4
	여자	1016	19.6	4.4	2.3	1.7	4.4	1.0	1.7	-	-
지역	서울	465	18.3	5.8	3.0	1.5	2.8	.6	1.5	.4	.2
	부산/경남/울산	200	11.0	5.0	.5	.5	1.5	3.0	-	-	-
	대구/경북	337	14.1	3.5	2.9	2.3	1.5	.9	.9	-	.3
	인천/경기/강원	627	15.8	3.5	1.7	1.7	3.8	2.2	2.1	.5	-
	광주/전라	430	23.4	6.4	3.2	4.8	4.1	1.6	3.2	.5	.2
	대전/충청	307	24.0	6.1	4.5	2.6	3.8	2.9	6.7	.6	1.0
연령	9-12세	761	18.2	4.7	4.1	2.6	2.7	1.0	3.9	.1	-
	13-15세	780	16.4	4.8	1.9	2.2	3.2	.8	1.7	.4	.1
	16-19세	800	19.6	5.4	2.2	2.3	3.6	3.5	1.8	.6	.6
	무응답	25	23.1	-	-	-	-	-	-	-	-
학년	초등학생	747	18.4	4.5	3.9	2.9	2.7	1.1	3.9	.1	-
	중학생	786	18.0	5.4	2.0	1.9	3.3	.6	1.8	.4	.3
	인문계고	587	18.8	5.2	2.2	2.7	3.2	3.7	2.0	.7	.7
	전문계고	246	16.1	4.0	2.4	1.2	4.0	2.8	1.2	.4	-
학급성적	못함	569	19.2	4.9	2.8	1.0	3.7	1.6	2.6	.5	.2
	보통	1028	16.9	4.8	2.1	1.8	2.6	2.4	1.9	-	.2
	잘함	530	16.7	4.6	3.3	2.4	3.0	1.2	3.0	.9	.6
	무응답	239	23.9	6.2	3.3	7.4	4.5	1.8	2.9	.4	-
최근 교육여부	있음	1383	19.1	5.0	2.4	2.9	3.5	1.4	2.0	.4	.2
	없음	973	16.9	5.0	3.1	1.6	2.6	2.2	3.0	.4	.3
가정경제상태	어려움	213	18.6	5.1	5.6	4.2	3.7	2.8	4.2	.5	.9
	보통	1404	16.9	4.6	1.7	1.3	2.7	1.6	2.0	.5	.1
	부유함	513	18.4	5.4	4.0	1.9	3.3	2.1	2.7	1.0	.6
	무응답	236	24.2	5.8	2.9	7.5	5.0	1.3	2.9	.4	-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76	17.4	4.6	2.5	2.1	2.9	1.3	2.1	.1	.0
	하루 1-5개비	103	24.8	4.8	2.9	3.8	6.7	6.7	5.7	1.0	1.9
	하루 6-10개비	20	40.0	15.0	5.0	-	-	-	5.0	-	-
	하루 11-19개비	26	19.2	11.5	3.8	-	7.7	7.7	7.7	7.7	7.7
	하루 한 갑 이상	27	32.1	14.3	10.7	14.3	3.6	14.3	3.6	7.1	3.6
현재 음주	전혀 아님	1958	16.7	4.1	2.3	2.0	2.6	1.2	2.1	.1	-
	한 달 1-2회	335	24.2	7.4	3.8	2.9	5.6	2.9	3.2	1.2	1.2
	일주일 1-2회	38	33.3	12.8	5.1	7.7	2.6	12.8	7.7	2.6	2.6
	거의 매일	25	26.9	19.2	7.7	11.5	3.8	7.7	3.8	3.8	3.8

3 인터넷 상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1.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용 정보 접촉 가능성

- 10대 학교 청소년 중 소수(7.9%)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담배, 술 포함)의 사용을 권하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급성적이 나쁠수록, 현재 음주를 할수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용을 권하는 정보를 접해본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사용정보 접촉 가능성 >



-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사용 정보를 접하는 집단일수록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거의 항상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사용 정보를 접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느끼거나 전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편차를 보였음

< 마약류 사용정보 접촉 통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²⁵⁾

사회적 위험성 인식(%) 마약류 사용정보(%)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거의 항상 접함	23.1	30.8	33.3	12.8
접하는 편	27.3	46.7	16.0	10.0
접하지 못하는 편	17.0	45.6	31.2	6.2
접한 적 없음	26.5	39.2	27.3	7.0

개인적 심각성 인식(%) 마약류 사용정보(%)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거의 항상 접함	38.5	41.0	7.7	12.8
접하는 편	27.3	50.0	18.0	4.7
접하지 못하는 편	24.2	50.9	21.9	3.0
접한 적 없음	30.1	44.1	22.2	3.6

25) $\chi^2 = 31.623, df=9$ 유의도 .000 / $\chi^2 = 23.781, df=9$ 유의도 .005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용을 권하는 정보를 접해본 응답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급성적이 나쁠수록, 현재 음주를 할수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인터넷 통한 사용정보		사례 수	거의 항상 접함	접하는 편	거의 접한 적 없음	접한 적 없음	접 함	비접함
전 체			1.6	6.3	16.9	75.1	7.9	92.0
성	남자	1,359	2.1	7.4	18.0	72.6	9.5	90.6
	여자	1,013	1.0	4.9	15.5	78.6	5.9	94.1
지역	서울	466	1.7	5.6	17.6	75.1	7.3	92.7
	부산/경남/울산	200	-	6.0	19.5	74.5	6.0	94.0
	대구/경북	339	1.8	5.3	17.7	75.2	7.1	92.9
	인천/경기/강원	625	1.9	5.1	16.0	77.0	7.0	93.0
	광주/전라	432	2.1	9.3	16.9	71.8	11.4	88.7
	대전/충청	312	1.3	7.1	15.1	76.6	8.4	91.7
연령	9-12세	759	.9	4.0	10.1	85.0	4.9	95.1
	13-15세	783	.9	6.3	20.7	72.2	7.2	92.9
	16-19세	806	2.7	8.8	19.5	69.0	11.5	88.5
	무응답	26	11.5	-	19.2	79.3	11.5	88.5
학년 ²⁶⁾	초등학생	745	.9	3.8	10.2	85.1	4.7	95.3
	중학생	790	1.0	6.8	20.0	72.2	7.8	92.2
	인문계고	592	2.5	7.8	19.6	70.1	10.3	89.7
	전문계고	247	3.6	8.9	20.6	66.8	12.5	87.4
학급성적	못함	570	1.9	8.8	17.2	72.1	10.7	89.3
	보통	1029	1.3	5.8	18.3	74.6	7.1	92.9
	잘함	532	2.3	4.7	16.0	77.1	7.0	93.1
	무응답	243	1.2	6.2	12.3	80.2	7.4	92.5
최근 교육여부	있음	1383	1.7	6.4	17.0	74.9	8.1	91.9
	없음	981	1.5	6.2	16.8	75.4	7.7	92.2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12	1.4	9.0	19.8	69.8	10.4	89.6
	보통	1404	1.5	5.7	17.3	75.5	7.2	92.8
	부유함	518	2.3	7.1	16.6	73.9	9.4	90.5
	무응답	240	1.3	5.8	12.5	80.4	7.1	92.9
현재 흡연 ²⁷⁾	전혀 아님	2182	1.1	4.9	16.3	77.7	6.0	94.0
	하루 1-5개비	105	5.7	21.0	32.4	41.0	26.7	63.4
	하루 6-10개비	20	5.0	30.0	20.0	45.0	35.0	65.0
	하루 11-19개비	26	15.4	30.8	7.7	46.2	46.2	53.9
	하루 한갑이상	27	14.8	25.9	11.1	48.1	40.7	59.2
현재 음주 ²⁸⁾	전혀 아님	1967	1.2	4.4	15.0	79.3	5.6	94.3
	한달 1-2회	333	2.4	13.2	28.8	55.6	15.6	84.4
	일주일 1-2회	39	10.3	30.8	10.3	48.7	41.1	59.0
	거의 매일	25	12.0	24.0	16.0	48.0	36.0	54.0

26) $\chi^2 = 69.632$, $df=9$ 유의도 .000 $r^2 = -.145$,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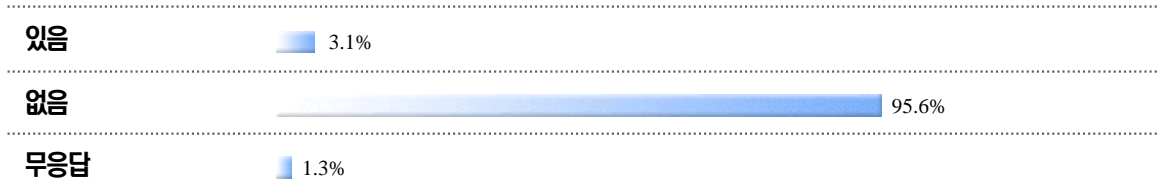
27) $\chi^2 = 219.160$, $df=12$ 유의도 .000 $r^2 = -.244$, 유의도 .000

28) $\chi^2 = 183.454$, $df=9$ 유의도 .000 $r^2 = -.242$, 유의도 .000

2.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구입 경험

- 10대 학교청소년들의 대부분(95.6%)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전라(6.1%), 16-19세(5.0%), 전문계고(7.3%), 학급성적 낮음(5.0%), 그리고 현재 음주를 할수록,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경험이 높게 나타남.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입 경험 >



인터넷을 통해 구입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등의 사용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구입경험 여부를 통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²⁹⁾

사회적 위험성 인식(%) 마약류 구입여부(%)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있음	27.4	41.1	21.9	9.6
없음	24.8	40.7	27.4	7.1

개인적 심각성 인식(%) 마약류 구입여부(%)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있음	32.9	39.7	21.9	5.5
없음	28.9	45.9	21.6	3.6

< 마약사용정보 경험과 구입경험 여부>³⁰⁾

마약류 사용정보(%) 마약류 구입여부(%)	항상 접함	접하는 편	접하지 않는 편	접한적 없음
있음	23.1	10.4	4.3	1.7
없음	76.9	89.6	95.7	98.3

29) $\chi^2 = 31.623$, $df=9$ 유의도 .000 / $\chi^2 = 23.781$, $df=9$ 유의도 .005

30) $\chi^2 = 91.383$, $df=3$ 유의도 .000 $r = .183$ 유의도 .005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남성(3.8%), 광주/전라(6.1%), 16-19세(5.0%), 전문계고(7.3%), 학급성적 낮음(5.0%), 그리고 현재 음주를 할수록, 현재 흡연을 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인터넷 통한 구입		사례 수	있음	없음			
전 체			3.1	96.9			
성	남자	1,350	3.8	96.2			
	여자	1,007	2.2	97.8			
지역³¹⁾	서울	464	2.2	97.8			
	부산/경남/울산	197	3.6	96.4			
	대구/경북	341	1.5	98.5			
	인천/경기/강원	617	2.4	97.6			
	광주/전라	429	6.1	93.9			
	대전/충청	311	3.2	96.8			
	무응답						
연령	9-12세	757	1.6	98.4			
	13-15세	775	2.7	97.3			
	16-19세	801	5.0	95.0			
	무응답	26	-	100.0			
학년³²⁾	초등학생	743	1.3	98.7			
	중학생	782	3.2	96.8			
	인문계고	589	3.4	96.6			
	전문계고	245	7.3	92.7			
학급성적	못함	562	5.0	95.0			
	보통	1023	2.4	97.6			
	잘함	533	2.3	97.7			
	무응답	241	3.3	96.7			
최근 교육여부	있음	1370	2.5	97.5			
	없음	979	4.0	96.0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13	3.8	96.2			
	보통	1397	2.9	97.1			
	부유함	511	3.3	96.7			
	무응답	238	3.4	96.6			
현재 흡연³³⁾	전혀 아님	2173	1.8	98.2			
	하루 1-5개비	104	15.4	84.6			
	하루 6-10개비	20	20.0	80.0			
	하루 11-19개비	25	32.0	68.0			
	하루 한갑이상	25	24.0	76.0			
현재 음주³⁴⁾	전혀 아님	1957	1.6	98.4			
	한달 1-2회	332	9.0	91.0			
	일주일 1-2회	38	21.1	78.9			
	거의 매일	24	16.7	83.3			

31) $\chi^2 = 18.025$, $df=5$ 유의도 .003

32) $\chi^2 = 22.555$, $df=3$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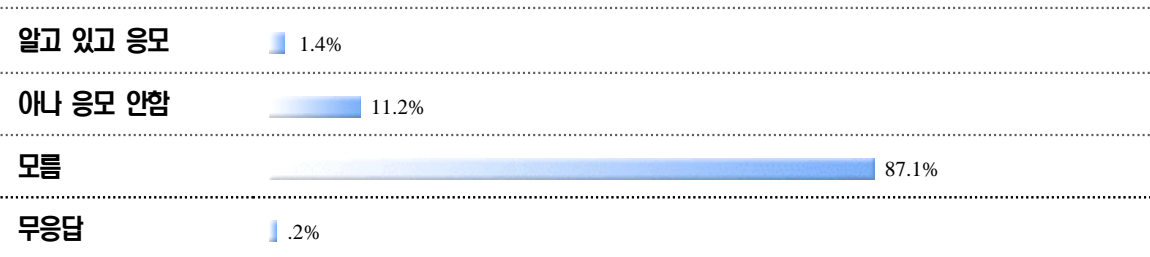
33) $\chi^2 = 188.841$, $df=4$ 유의도 .000 $r^2 = -.267$, 유의도 .000

34) $\chi^2 = 109.221$, $df=3$ 유의도 .000 $r^2 = -.209$, 유의도 .000

3.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 모니터링 인식도

- 10대 학교청소년의 9명중 1명 정도(12.6%)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알고 있는 사람 중 10명에 9명 정도는 공모 등에 응모한 적이 있다고 함.

<인터넷 모니터링 인식도>



- 인터넷 모니터링을 알고 응모한 적이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개인적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모니터링 인식도를 통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³⁵⁾

사회적 위험성 인식(%) 모니터링 인지여부(%)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알고 응모	44.1	29.4	17.6	8.8
알되 응모안함	33.6	44.4	15.3	6.7
모름	23.5	40.4	28.9	7.2

- 인터넷 모니터링을 알고 있는 집단이 알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함

개인적 심각성 인식(%) 모니터링 인지여부(%)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알고 응모	44.1	38.2	11.8	5.9
알되 응모안함	38.1	45.1	11.2	5.6
모름	27.7	45.7	23.2	3.4

-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사용정보를 접한 집단일수록 모니터링을 인식하고 있었음

<마약류 사용정보와 모니터링 인지 여부>³⁶⁾

마약류 사용정보(%) 모니터링 인지여부(%)	항상 접함	접하는 편	접하지 않는편	접한적 없음
알고 응모	2.6	4.0	1.5	1.2
알되 응모안함	21.1	19.5	12.7	10.0
모름	76.3	76.5	85.8	88.8

35) $\chi^2 = 34.483$, $df=6$ 유의도 .000 / $\chi^2 = 32.804$, $df=6$ 유의도 .005

36) $\chi^2 = 26.782$, $df=6$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을 알고 응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서울(2.6%), 초등학생(2.0%), 학급 성적 우수(2.8%), 가정경제 부유함(2.7%) 그리고 현재 흡연하고 있고 현재 음주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을 알기만 한 응답자는 광주/전라(13.6%), 13-15세(13.3%), 중학생(14.6%),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13.7%), 가정경제 부유함(13.9%) 그리고 현재 흡연하고 있고 현재 음주하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모니터링 인지여부		사례 수	알고 응모 경험	아나 응모 경험 없음	모름		알	모름
전 체			1.4	11.2	87.3		12.6	87.3
성	남자	1,366	1.5	12.2	86.4			
	여자	1,018	1.4	10.0	88.6			
지역	서울	468	2.6	12.6	84.8			
	부산/경남/울산	200	1.0	10.0	89.0			
	대구/경북	341	.3	9.1	90.6			
	인천/경기/강원	629	1.0	9.5	89.5			
	광주/전라	434	1.6	13.6	84.8			
	대전/충청	313	1.9	12.5	85.6			
연령	9-12세	764	1.7	11.8	86.5			
	13-15세	787	1.1	13.3	85.5			
	16-19세	809	1.4	8.9	89.7			
	무응답	25	4.0	4.0	92.0			
학년 ³⁷⁾	초등학생	750	2.0	12.0	86.0			
	중학생	793	1.0	14.6	84.4			
	인문계고	595	1.2	6.2	92.6			
	전문계고	247	1.6	10.1	88.3			
학급성적 ³⁸⁾	못함	572	1.6	9.3	89.2			
	보통	1033	.7	11.6	87.7			
	잘함	537	2.8	9.5	87.7			
	무응답	243	1.2	18.1	80.7			
최근 교육여부 ³⁹⁾	있음	1390	1.7	13.7	84.7			
	없음	985	1.0	7.8	91.2			
가정 경제상태 ⁴⁰⁾	어려움	214	1.9	9.3	88.8			
	보통	1412	.9	9.3	89.7			
	부유함	519	2.7	13.9	83.4			
	무응답	240	1.3	18.3	80.4			
현재 흡연 ⁴¹⁾	전혀 아님	2194	1.1	10.8	88.1			
	하루 1-5개비	105	3.8	17.1	79.0			
	하루 6-10개비	20	10.0	15.0	75.0			
	하루 11-19개비	26	7.7	11.5	80.8			
	하루 한갑이상	26	7.7	19.2	73.1			
현재 음주 ⁴²⁾	전혀 아님	1973	1.3	10.8	87.9			
	한달 1-2회	339	1.2	12.7	86.1			
	일주일 1-2회	39	5.1	10.3	84.6			
	거의 매일	24	12.5	20.8	66.7			

37) $\chi^2 = 28.010$, $df=6$ 유의도 .000

38) $\chi^2 = 26.497$, $df=6$ 유의도 .000

39) $\chi^2 = 22.037$, $df=2$ 유의도 .000

40) $\chi^2 = 31.090$, $df=6$ 유의도 .000

41) $\chi^2 = 37.875$, $df=8$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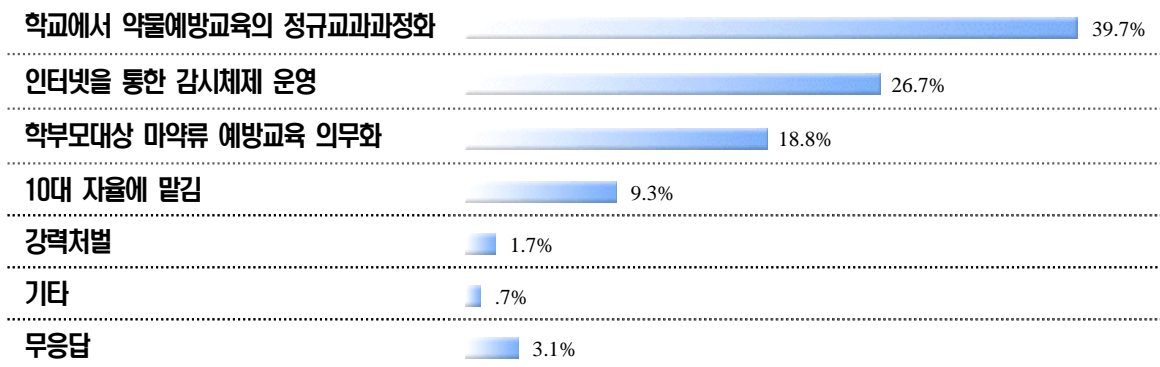
42) $\chi^2 = 29.021$, $df=6$ 유의도 .000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

1.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노출차단 방안

-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10명 중 4명(41.0%)이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하여 교육’하는 것을 꼽았으며, 5명중 1명 정도로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를 선택하여 예방교육을 통한 예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보임
- 이에 반해 감시체제 운영이나 10대 자율에 맡김은 소수이었음

<마약류 문제 노출차단 방안>



-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중 ‘학교 정규교과과정화’ 및 ‘부모 교육의무화’와 같이 예방교육을 통한 접근을 바라는 집단이 ‘인터넷 감시체제’나 ‘10대 자율에 맡김’과 같은 강제와 방임보다는 마약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더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개인적 인식도 비슷한 결과를 보임.

< 문제 노출차단방안과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⁴³⁾

사회적 위험성 인식(%) 문제 대처방안(%)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학교 정규교과과정	25.6	42.0	26.4	5.9
인터넷 감시체제	23.7	41.4	27.3	7.5
부모 교육 의무화	27.1	41.3	25.3	6.2
10대 자율에 맡김	21.7	36.2	31.7	10.4
기타(강력처벌 등)	20.7	34.4	34.4	10.5
개인적 심각성 인식(%) 문제 대처방안(%)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학교 정규교과과정	29.7	49.1	18.8	2.4
인터넷 감시체제	25.0	47.3	24.6	3.1
부모 교육 의무화	33.6	44.1	18.7	3.6
10대 자율에 맡김	23.1	33.9	33.9	9.0
기타(강력처벌 등)	34.5	41.4	17.2	6.9

43) 개인적 심각성 : $\chi^2 = 98.687$, $df = 30$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에 노출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방안 중
- ‘학교정규 교과정화’의 경우, 여자(46.4%), 부산/경남/울산(57.1%), 9-12세(48.5%),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44.3%), 학년이 낮을수록, 현재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과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터넷 감시체제 운영’의 경우, 대구/경북(32.4%), 학급성적 보통(32.1%), 최근 예방교육 받지 않은 집단(30.1%), 연령이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가정 경제가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효과적인 방안		사례 수	학부모대상 교육의무화	학교 정규 과정 채택	인터넷 감시체제	10대 자율	강력처벌	기타
전 체			19.4	41.0	27.5	9.5	1.8	.7
성	남자	1,322	20.7	36.8	27.4	11.2	2.8	1.1
	여자	991	17.8	46.4	27.7	7.4	.4	.3
지역⁴⁴⁾	서울	452	19.2	36.5	30.8	10.2	2.0	.9
	부산/경남/울산	196	11.2	57.1	25.0	5.6	.5	.5
	대구/경북	330	20.0	33.9	32.4	11.5	1.2	.9
	인천/경기/강원	606	18.5	42.9	28.2	8.3	1.8	.4
	광주/전라	425	23.1	44.7	20.0	9.6	1.9	.7
	대전/충청	306	21.2	35.9	28.1	11.4	2.6	.7
연령	9-12세	740	21.4	48.5	25.3	4.1	.7	.1
	13-15세	771	18.9	39.3	27.9	10.5	2.5	.7
	16-19세	779	18.5	35.6	29.3	13.4	2.2	.9
	무응답	25	8.0	40.0	28.0	24.0	-	-
학년⁴⁵⁾	초등학생	728	21.6	48.2	25.5	4.0	.5	.1
	중학생	775	19.7	39.2	26.8	10.8	2.5	.8
	인문계고	577	16.5	34.8	32.1	12.3	2.8	1.3
	전문계고	235	19.1	39.6	24.7	15.7	.9	-
학급성적	못함	556	17.1	43.9	23.6	12.9	2.0	.6
	보통	998	18.1	39.2	32.1	8.7	1.3	.3
	잘함	525	22.3	39.4	27.4	7.2	2.3	.5
최근 교육여부⁴⁶⁾	무응답	236	24.2	45.3	17.8	10.2	2.1	-
	있음	1349	19.6	44.3	25.6	8.4	1.5	.6
	없음	959	19.0	36.6	30.1	11.3	2.2	.8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05	15.1	42.0	27.3	12.7	2.4	.5
	보통	1371	18.8	41.0	28.3	9.3	1.8	.4
	부유함	506	20.4	39.1	30.0	8.5	1.2	.4
	무응답	233	24.9	44.2	17.6	10.3	2.6	-
현재 흡연⁴⁷⁾	전혀 아님	2129	20.1	42.1	27.9	7.6	1.7	.6
	하루 1-5개비	102	11.8	31.4	28.4	23.5	2.9	1.1
	하루 6-10개비	18	5.6	38.9	22.2	33.3	-	-
	하루 11-19개비	25	16.0	20.0	16.0	44.0	4.0	-
	하루 한갑이상	28	17.9	7.1	14.3	57.1	-	3.6
현재 음주⁴⁸⁾	전혀 아님	1919	20.3	42.1	27.9	7.3	1.7	1.0
	한달 1-2회	327	15.9	38.8	26.6	15.6	2.4	.4
	일주일 1-2회	37	13.5	18.9	27.0	40.5	-	-
	거의 매일	23	13.0	13.0	13.0	56.5	-	4.3

44) $\chi^2 = 89.225$, $df = 50$ 유의도 .001

45) $\chi^2 = 97.199$, $df = 30$ 유의도 .000 $r = .119$, 유의도 .000

46) $\chi^2 = 25.836$, $df = 10$ 유의도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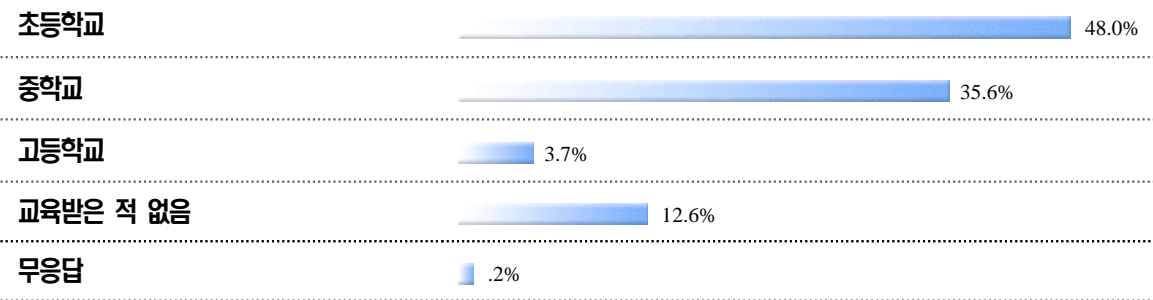
47) $\chi^2 = 194.791$, $df = 40$ 유의도 .000 $r = .127$, 유의도 .000

48) $\chi^2 = 151.315$, $df = 30$ 유의도 .000 $r = .114$, 유의도 .000

2. 약물남용예방교육을 처음 받은 시점

- 10대 청소년의 약 절반(48.0%)이 초등학교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처음 받은 것으로 나타남.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예방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중학생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처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점점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시작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최초 예방교육 시점>



- 최초 예방교육을 빨리 받은 집단일수록 마약류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
- 최초 예방교육을 빨리 받은 집단일수록 마약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개인적으로 체감한다고 응답
- 특히 초등학교에서 최초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조기 예방교육의 필요성 제시.

<최초 교육 장소와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⁴⁹⁾

사회적 위험성 인식(%) 최초 교육받은 곳(%)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초등학교	30.5	41.7	22.8	5.1
중학교	21.4	43.0	29.5	6.1
고등학교	14.6	38.2	34.8	12.4
받은 적 없음	16.0	31.7	35.7	16.7

개인적 심각성 인식(%) 최초 교육받은 곳(%)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초등학교	38.3	43.7	14.8	3.2
중학교	22.4	49.7	24.4	3.4
고등학교	20.2	39.3	36.0	4.5
받은 적 없음	15.0	43.3	36.0	4.5

49) $\chi^2 = 108.604$, $df=9$ 유의도 .000 $r = .195$, 유의도 .000 / $\chi^2 = 142.637$, $df=9$ 유의도 .000 $r = .215$,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초등학교에서 처음 예방교육을 받았다는데 높은 응답율을 보인 집단으로는 인천/경기/강원(58.1%),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상태가 좋을수록, 현재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은 집단이었음.
- 중학교에서 처음 예방교육을 받았다는데 높은 응답율을 보인 집단으로는 남자(38.8%), 대구/경북(49.9%), 학급성적이 못할수록, 가정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현재 흡연과 음주를 하는 집단이었음.

처음 교육을 받은 곳		사례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받은 적 없음		
전 체			48.0	35.7	3.7	12.6		
성	남자	1,366	47.0	38.8	3.5	10.7		
	여자	1,018	49.4	31.4	4.0	15.1		
지역 ⁵⁰⁾	서울	469	55.4	33.9	1.7	9.0		
	부산/경남/울산	200	29.5	48.5	6.5	15.5		
	대구/경북	341	27.0	49.9	5.9	17.3		
	인천/경기/강원	628	58.1	29.3	2.9	9.7		
	광주/전라	435	47.1	36.6	6.2	10.1		
	대전/충청	313	52.7	26.2	1.0	20.1		
연령	9-12세	764	86.1	1.3	-	12.5		
	13-15세	786	42.0	47.6	.5	9.9		
	16-19세	810	18.8	55.9	10.0	15.3		
	무응답	26	23.1	53.9	3.9	19.2		
학년 ⁵¹⁾	초등학생	750	87.5	-	-	12.5		
	중학생	793	42.0	48.9	-	9.1		
	인문계고	595	21.5	55.8	6.6	17.1		
	전문계고	248	11.7	53.2	19.0	16.1		
학급성적 ⁵²⁾	못함	574	36.6	44.4	4.4	14.6		
	보통	1033	46.5	34.8	4.1	14.6		
	잘함	537	53.6	32.8	3.0	10.6		
	무응답	242	69.4	24.8	2.5	3.3		
최근 교육여부 ⁵³⁾	있음	1393	61.2	35.5	3.1	.1		
	없음	985	29.2	35.8	4.7	30.3		
가정 경제상태 ⁵⁴⁾	어려움	215	35.8	40.9	5.1	18.1		
	보통	1411	42.2	39.5	4.3	14.0		
	부유함	521	58.5	28.4	2.1	10.9		
	무응답	239	70.7	23.8	2.5	2.9		
현재 흡연 ⁵⁵⁾	전혀 아님	2194	49.7	34.0	3.5	12.8		
	하루 1-5개비	105	28.6	53.3	7.6	10.5		
	하루 6-10개비	20	20.0	75.0	-	5.0		
	하루 11-19개비	26	19.2	65.4	3.8	11.5		
	하루 한갑이상	28	35.7	42.9	10.7	10.7		
현재 음주 ⁵⁶⁾	전혀 아님	1974	51.3	32.9	2.9	12.9		
	한달 1-2회	338	31.7	48.8	7.7	11.8		
	일주일 1-2회	39	33.3	53.8	7.7	5.1		
	거의 매일	26	34.6	38.5	11.5	15.4		

50) $\chi^2 = 170.907$, $df=5$ 유의도 .000

51) $\chi^2 = 1022.907$, $df=9$ 유의도 .000 $r = .370$, 유의도 .000

52) $\chi^2 = 90.844$, $df=9$ 유의도 .000 $r = -.161$, 유의도 .000

53) $\chi^2 = 541.652$, $df=3$ 유의도 .000 $r = .465$, 유의도 .000

54) $\chi^2 = 112.336$, $df=9$ 유의도 .000 $r = -.185$,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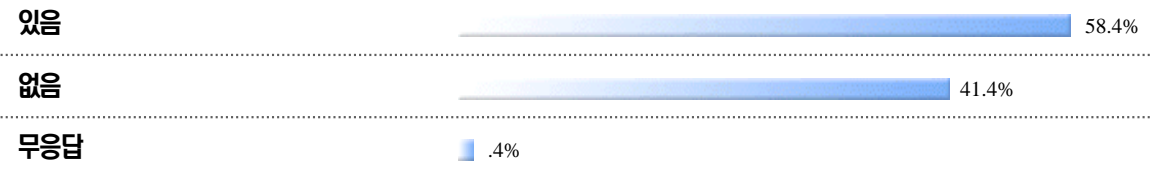
55) $\chi^2 = 55.152$, $df=12$ 유의도 .000

56) $\chi^2 = 76.218$, $df=9$ 유의도 .000

3. 최근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10대 학교 청소년 10명 중 약6명(58.4%)이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63.7%), 인천/경기/강원(63.4%), 9-12세(72.4%), 초등학생(73.0%), 가정 경제 부유함(64.3%), 그리고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예방교육 수강 여부>



-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마약류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마약류 문제를 개인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최근 예방교육 여부와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⁵⁷⁾

사회적 위험성 인식(%) 최근 교육여부(%)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있음	28.1	43.0	24.4
없음	20.4	37.5	31.4	10.6
개인적 심각성 인식(%) 최근 교육여부(%)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있음	34.1	46.6	17.3
없음	21.9	44.3	28.0	5.8

57) $\chi^2 = 59.323$, $df=3$ 유의도 .000 $r = .151$, 유의도 .000 / $\chi^2 = 82.501$, $df=3$ 유의도 .000 $r = .185$,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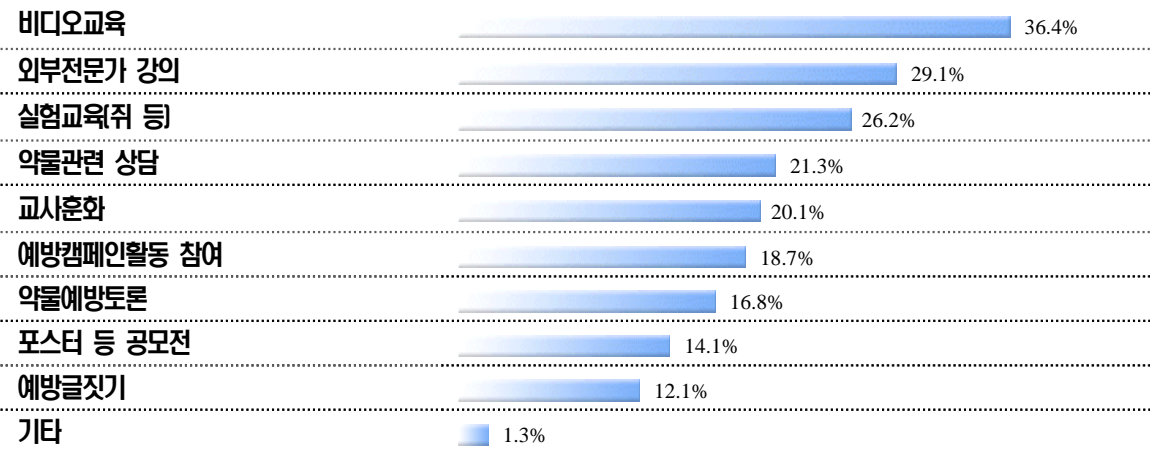
□ 서울(63.7%), 인천/경기/강원(63.4%), 9-12세(72.4%), 초등학생(73.0%), 가정 경제 부유함(64.3%), 그리고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최근 1년 이내에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예방교육 여부		사례 수	있음	없음			
전 체			58.6	41.4			
성	남자	1,362	58.0	42.0			
	여자	1,016	59.4	40.6			
지역	서울	466	63.7	36.3			
	부산/경남/울산	200	60.0	40.0			
	대구/경북	341	56.9	43.1			
	인천/경기/강원	626	63.4	36.6			
	광주/전라	435	60.0	40.0	$x^2 = 56.151, df=5$ 유의도 .000		
	대전/충청	312	40.1	59.9			
연령	9-12세	762	72.4	27.6			
	13-15세	784	65.1	34.9			
	16-19세	808	40.3	59.7			
	무응답	26	23.1	76.9			
학년	초등학생	747	73.0	27.0			
	중학생	792	67.4	32.6	$x^2 = 245.301, df=3$ 유의도 .000 $r^2 = .287, \text{유의도 .000}$		
	인문계고	595	36.1	63.9			
	전문계고	246	40.7	59.3			
학급성적	못함	573	53.2	46.8			
	보통	1030	57.8	42.2			
	잘함	535	64.3	35.7	$x^2 = 15.410, df=3$ 유의도 .001		
	무응답	242	62.0	38.0			
최근 교육여부	있음						
	없음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15	51.6	48.4			
	보통	1407	56.7	43.3			
	부유함	519	64.5	35.5	$x^2 = 15.634, df=3$ 유의도 .001		
	무응답	239	62.8	37.2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88	59.3	40.7			
	하루 1-5개비	105	48.6	51.4			
	하루 6-10개비	20	45.0	55.0			
	하루 11-19개비	26	50.0	50.0			
	하루 한갑이상	28	60.7	39.3			
현재 음주	전혀 아님	1967	60.2	39.8			
	한달 1-2회	339	50.4	49.6			
	일주일 1-2회	39	51.3	48.7	$x^2 = 12.228, df=3$ 유의도 .007		
	거의 매일	26	57.7	42.3			

4. 약물남용예방교육 종류별 효과

- 10대 학교 청소년들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 ‘비디오 교육’(36.4%), ‘외부전문가 강의’(29.1%), ‘실험교육’(26.2%), ‘약물관련 상담’(21.3%), ‘선생님 훈화’(20.1%) 순으로 응답함.

<약물남용예방교육 종류별 효과>



- ‘캠페인 활동 참여’와 ‘약물관련 상담’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1대1 등 소수의 사람에 대한 접근법이나 실제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해 보는 것이 효과적임을 볼 수 있음.

- ‘캠페인 활동 참여’와 ‘비디오 교육’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개인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예방교육활동과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 >

사회적 위험성 인식(%) 주요 예방교육활동(%)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비디오교육	31.1	41.9	20.8	6.2
외부전문가 강의	28.7	44.4	20.5	6.3
실험교육	29.4	41.6	22.4	6.6
약물관련 상담	32.4	41.4	19.6	6.7
캠페인활동 참여	32.5	42.4	17.0	8.1
개인적 심각성 인식(%) 주요 예방교육활동(%)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비디오교육	34.3	45.8	16.8	3.1
외부 전문가 강의	32.9	46.0	17.7	3.4
실험교육	30.1	45.9	20.3	3.7
약물관련 상담	33.7	44.9	17.8	3.5
캠페인 활동 참여	34.8	44.6	16.4	4.3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비디오 교육’의 경우, 서울(49.0%),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44.8%),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험교육’의 경우, 서울(33.5%),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30.8%), 학급성적이 나쁠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사훈화’의 경우, 서울(27.5%),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25.0%),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그리고 현재 음주하지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효과적인 예방교육1		사례 수	비디오 교육			실험교육(취 등)			교사 훈화		
			매우 도움	도움	소계	매우 도움	도움	소계	매우 도움	도움	소계
전 체			10.5	25.9	36.4	9.5	16.7	26.2	4.5	15.7	20.1
성	남자	1,369	10.4	25.9	36.2	9.8	17.0	26.8	4.9	16.3	21.2
	여자	1,018	10.6	25.9	36.5	9.1	16.2	25.3	3.8	14.8	18.7
지역	서울	469	16.0	33.0	49.0	13.0	20.5	33.5	7.0	20.5	27.5
	부산/경남/울산	200	7.0	22.0	29.0	8.0	16.5	24.5	.5	16.0	16.5
	대구/경북	341	6.5	28.4	34.9	10.3	17.3	27.6	2.1	12.6	14.7
	인천/경기/강원	631	10.3	18.9	29.2	7.9	14.3	22.2	3.6	12.5	16.2
	광주/전라	435	11.3	28.7	40.0	10.8	15.9	26.7	6.2	17.2	23.4
	대전/충청	313	8.3	24.9	33.2	5.8	16.3	22.0	5.1	15.7	20.8
연령	9-12세	766	18.9	24.9	43.9	12.3	12.1	24.4	9.7	18.9	28.6
	13-15세	787	6.7	27.1	33.8	8.5	18.9	27.4	1.8	16.1	17.9
	16-19세	810	6.2	26.2	32.3	8.0	18.9	26.9	2.1	12.3	14.4
	무응답	26	11.5	7.7	19.2	3.9	11.5	15.4	7.7	7.7	15.4
학년	초등학생	752	19.7	24.5	44.1	12.6	12.4	25.0	9.8	19.3	29.1
	중학생	794	6.7	27.7	34.4	8.6	19.5	28.1	2.0	16.2	18.3
	인문계고	595	6.1	24.5	30.6	7.7	16.0	23.7	1.7	10.8	12.4
	전문계고	248	5.6	27.4	33.1	7.3	22.2	28.4	2.8	14.5	17.3
학급성적	못함	575	7.7	24.9	32.5	8.3	19.5	27.8	2.6	14.4	17.0
	보통	1034	9.3	26.3	35.6	9.1	16.7	25.8	4.2	16.4	20.6
	잘함	538	13.4	24.3	37.7	8.6	13.2	21.7	4.3	15.1	19.3
	무응답	242	16.1	29.8	45.9	16.1	17.4	33.5	10.7	16.5	27.3
최근 교육여부	있음	1394	14.8	30.0	44.8	11.8	19.0	30.8	6.0	19.8	25.0
	없음	986	4.6	20.2	24.7	6.3	13.4	18.7	2.3	9.8	12.2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15	8.4	21.9	30.2	5.6	14.9	20.5	2.8	8.4	11.2
	보통	1413	8.1	25.5	33.6	8.4	17.6	25.9	2.8	15.9	18.8
	부유함	522	15.1	26.6	41.8	11.3	14.9	26.2	6.7	17.8	24.5
	무응답	239	16.7	29.7	46.4	15.9	16.7	32.6	10.9	15.9	26.8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97	10.8	25.8	36.5	9.5	16.2	25.7	4.6	15.7	20.3
	하루 1-5개비	105	4.8	28.6	33.3	10.5	21.0	31.4	1.9	12.4	14.3
	하루 6-10개비	20	-	30.0	30.0	5.0	25.0	30.0	-	15.0	15.0
	하루 11-19개비	26	7.7	19.2	26.9	3.8	15.4	19.2	7.7	15.4	23.1
	하루 한갑이상	28	7.1	25.0	32.1	14.3	25.0	39.3	3.6	14.3	17.9
현재 음주	전혀 아님	1975	11.0	25.3	36.3	9.5	16.2	25.7	4.7	16.2	21.0
	한달 1-2회	339	7.7	28.6	36.3	9.4	19.2	28.6	3.2	13.6	16.8
	일주일 1-2회	39	5.1	25.6	30.8	7.7	23.1	30.8	2.6	5.1	7.7
	거의 매일	26	3.8	30.8	34.6	11.5	11.5	23.1	3.8	11.5	15.4

- ‘포스터 등 공모전’의 경우, 광주/전라(19.5%), 9-12세(18.7%), 초등학생(19.1%),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17.4%), 가정경제가 부유한 집단(16.9%)에서 높게 나타남.
- ‘예방글짓기’의 경우, 광주/전라(16.3%), 9-12세(16.6%), 초등학생(16.9%),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14.5%),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외부 전문가 강의’의 경우, 서울(38.4%),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35.9%),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효과적인 예방교육2		공모전			예방글짓기			외부 전문가 강의		
		매우 도움	도움	소계	매우 도움	도움	소계	매우 도움	도움	소계
전 체		2.8	11.2	14.1	2.4	9.7	12.1	9.4	19.7	29.1
성	남자	3.1	11.3	14.5	3.1	9.9	12.9	11.0	18.8	29.9
	여자	2.5	11.1	13.6	1.5	9.5	11.0	7.2	20.9	28.1
지역	서울	3.6	14.3	17.9	4.3	11.5	15.8	14.1	24.3	38.4
	부산/경남/울산	1.0	12.5	13.5	-	11.0	11.0	7.5	19.5	27.0
	대구/경북	1.5	12.0	13.5	.6	9.7	10.3	7.6	23.8	31.4
	인천/경기/강원	1.7	7.8	9.5	1.6	7.9	9.5	9.4	16.0	25.4
	광주/전라	5.3	14.3	19.5	4.1	12.2	16.3	9.2	20.0	29.2
	대전/충청	3.2	7.7	10.9	2.2	6.4	8.6	6.1	15.7	21.7
연령	9-12세	5.7	12.9	18.7	5.0	11.6	16.6	14.6	17.2	31.9
	13-15세	.9	10.5	11.4	.6	9.7	10.3	8.3	21.1	29.4
	16-19세	2.0	10.2	12.2	1.6	7.9	9.5	5.6	21.0	26.5
	무응답	3.9	11.5	15.4	3.9	11.5	15.4	11.5	11.5	23.0
학년	초등학생	5.9	13.3	19.1	4.8	12.1	16.9	14.8	17.3	32.0
	중학생	1.0	10.3	11.3	1.1	9.9	11.1	8.7	21.3	30.0
	인문계고	1.5	8.6	10.1	1.0	5.9	6.9	5.5	19.3	24.9
	전문계고	2.8	14.1	16.9	2.4	10.9	13.3	4.8	23.0	27.8
학급성적	못함	1.6	10.1	11.7	1.2	9.6	10.8	7.8	19.7	27.5
	보통	2.2	11.6	13.8	1.8	10.1	11.9	8.8	19.4	28.2
	잘함	3.2	9.1	12.3	3.0	6.9	9.9	11.5	19.7	31.2
	무응답	7.9	16.9	24.8	6.2	14.9	21.4	11.2	21.1	32.2
최근 교육여부	있음	3.7	13.6	17.4	3.2	11.3	14.5	12.8	23.1	35.9
	없음	1.6	7.9	9.5	1.2	7.5	8.7	4.7	15.1	19.8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5.1	6.5	11.6	2.8	5.6	8.4	10.7	15.8	26.5
	보통	1.6	9.9	11.5	1.2	8.8	10.0	8.1	19.9	28.0
	부유함	3.1	13.8	16.9	3.6	11.7	15.3	11.5	20.5	32.0
	무응답	7.9	17.6	25.5	6.3	14.6	20.9	11.3	20.5	31.8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9	11.2	14.1	2.4	9.7	12.1	9.6	19.6	29.2
	하루 1-5개비	1.9	6.7	8.6	2.9	7.6	10.5	5.7	22.9	28.6
	하루 6-10개비	-	20.0	20.0	-	15.0	15.0	10.0	25.0	35.0
	하루 11-19개비	3.8	11.5	15.4	3.8	7.7	11.5	7.7	15.4	23.1
	하루 한갑이상	3.6	10.7	14.3	3.6	7.1	10.7	3.6	14.3	17.9
현재 음주	전혀 아님	2.8	11.5	14.3	2.2	10.1	12.3	9.7	19.4	29.1
	한달 1-2회	2.4	8.6	10.9	3.2	7.4	10.6	6.2	22.7	28.9
	일주일 1-2회	5.1	17.9	23.1	2.6	7.7	10.3	15.4	10.3	25.6
	거의 매일	3.8	15.4	19.2	3.8	57.7	11.5	7.7	19.2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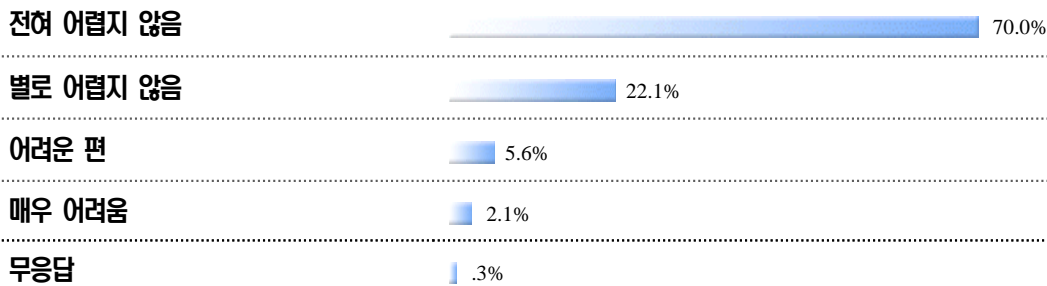
- ‘약물관련 상담’의 경우, 서울(28.4%),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24.7%),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약물예방토론’의 경우, 서울(23.0%),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19.9%),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캠페인활동 참여’의 경우, 서울(24.5%),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22.0%), 연령이 어릴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성적이 낮을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효과적인 예방교육3		약물관련 상담			약물예방토론			캠페인 참여			기타		
		매우 도움	도움	소계	매우 도움	도움	소계	매우 도움	도움	소계	매우 도움	도움	소계
전 체		5.5	15.8	21.3	3.6	13.2	16.8	5.4	13.3	18.7	.5	.7	1.3
성	남자	6.3	16.4	22.6	4.4	13.4	17.8	5.6	13.6	19.2	.7	.9	1.6
	여자	4.4	15.1	19.5	2.7	13.0	15.6	5.0	13.0	18.0	.3	.5	.8
지역	서울	7.2	21.1	28.4	3.0	20.0	23.0	6.6	17.9	24.5	1.1	1.5	2.6
	부산/경남/울산	6.0	17.0	23.0	3.0	14.5	17.5	5.5	15.0	20.5	.5	2.5	3.0
	대구/경북	5.3	14.4	19.6	3.8	13.5	17.3	4.7	15.8	20.5	-	-	-
	인천/경기/강원	5.1	11.7	16.8	3.6	9.4	13.0	4.4	10.0	14.4	.2	.2	.3
	광주/전라	5.7	17.0	22.8	4.8	13.3	18.2	5.7	12.4	18.2	.9	.2	1.1
	대전/충청	3.5	15.3	18.8	3.2	9.6	12.8	5.4	10.5	16.0	.6	1.0	1.6
연령	9-12세	8.2	13.3	21.5	5.6	13.8	19.5	8.6	11.9	20.5	.9	1.2	2.1
	13-15세	4.6	17.5	22.1	3.0	13.5	16.5	4.8	13.9	18.7	.3	.4	.6
	16-19세	4.0	16.3	20.2	2.3	12.1	14.4	2.7	14.1	16.8	.5	.6	1.1
	무응답	3.9	23.1	27.0	3.9	23.1	27.0	7.7	15.4	23.1	-	-	-
학년	초등학생	8.0	13.7	21.7	5.9	13.3	19.1	8.8	11.8	20.6	.9	1.2	2.1
	중학생	5.2	17.5	22.7	3.1	14.5	17.6	4.9	14.5	19.4	.3	.4	.6
	인문계고	3.5	15.3	18.8	2.2	10.4	12.6	2.5	12.8	15.3	.5	.7	1.2
	전문계고	4.0	18.1	22.2	2.0	15.7	17.7	3.2	15.3	18.5	.4	.4	.8
학급성적	못함	5.6	15.8	21.4	3.3	15.0	18.3	5.2	15.7	20.9	.3	1.0	1.4
	보통	5.1	16.3	21.5	2.9	12.9	15.8	4.8	13.0	17.8	.2	.7	.9
	잘함	6.3	11.5	17.8	4.1	9.1	13.2	4.5	9.1	13.6	.9	.4	1.3
	무응답	5.4	23.1	28.5	6.6	19.8	26.4	9.9	18.6	28.5	1.7	.8	2.5
최근 교육여부	있음	7.5	17.2	24.7	4.5	15.4	19.9	6.6	15.4	22.0	.7	.8	1.5
	없음	2.8	13.9	16.7	2.4	10.2	12.7	3.7	10.4	14.1	.3	.6	.9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8	13.5	16.3	2.8	8.4	11.2	2.8	11.6	14.4	.9	1.9	2.9
	보통	5.2	14.9	20.2	2.6	12.4	15.0	4.0	13.3	17.3	.3	.6	.8
	부유함	7.5	16.1	23.6	5.4	14.6	19.9	8.0	11.7	19.7	.8	.6	1.3
	무응답	5.4	22.6	28.0	6.7	19.7	26.4	9.6	18.4	28.9	1.3	.8	2.1
현재 흡연	전혀 아님	5.6	15.7	21.3	3.6	13.3	16.9	5.4	13.2	18.6	.5	.7	1.2
	하루 1-5개비	3.8	19.0	22.9	1.9	13.3	15.2	3.8	14.3	18.1	1.0	-	1.0
	하루 6-10개비	-	25.0	25.0	5.0	10.0	15.0	5.0	15.0	20.0	-	-	-
	하루 11-19개비	-	15.4	15.4	-	15.4	15.4	-	15.4	15.4	-	-	-
	하루 한갑이상	7.1	7.1	14.3	7.1	7.1	14.3	7.1	10.7	17.9	-	-	-
현재 음주	전혀 아님	5.7	15.6	21.3	3.6	13.7	17.3	5.5	13.2	18.7	.3	.8	1.1
	한달 1-2회	3.8	17.4	21.2	3.2	11.5	14.7	4.1	13.6	17.7	1.5	.3	1.8
	일주일 1-2회	10.3	15.4	25.6	5.1	7.7	12.8	5.1	12.8	17.9	2.6	-	2.6
	거의 매일	3.8	7.7	11.5	3.8	13.2	11.5	7.7	11.5	19.2	-	-	-

5.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가능성

- 10대 학교 청소년의 10명중 9명(92.1%)이 ‘친구가 마약류 및 약물을 하자고 유혹해도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9-12세(94.4%), 초등학생(94.5%), 학급성적 우수(95.7%),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93.6%)에서 ‘친구의 유혹에도 거절하기 어렵지 않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마약류 및 남용약물을 접하지 않은 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봄

<마약류 사용 유혹 거절>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유혹 거절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집단과 매우 어렵다는 집단에서 사회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음. 다만 매우 어렵다는 집단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여 어렵다는 집단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매우 어렵다는 집단에서 개인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은 집단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거절 반응과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⁵⁸⁾

사회적 위험성 인식(%) 거절 반응(%)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전혀 어렵지 않음	28.4	<u>39.5</u>	25.2	6.9
별로 어렵지 않음	14.4	<u>46.8</u>	32.6	6.3
어려운 편	20.1	<u>38.1</u>	31.3	8.2
매우 어려움	<u>30.6</u>	28.6	24.5	16.3
개인적 심각성 인식(%) 거절 반응(%)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전혀 어렵지 않음	31.0	<u>44.6</u>	21.1	3.3
별로 어렵지 않음	22.7	<u>48.3</u>	25.4	3.6
어려운 편	31.3	<u>47.8</u>	17.9	3.0
매우 어려움	26.5	<u>40.8</u>	12.2	20.4

58) $\chi^2 = 58.395$, $df=9$ 유의도 .000 / $\chi^2 = 55.984$, $df=9$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친구의 유혹에도 거절하기 어렵지 않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집단에는 9-12세(94.4%), 초등학생(94.5%), 학급성적 우수(95.7%),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93.6%)이었음

사용 유혹 거절 여부		사례 수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어렵지 않음	어려움
전 체			70.2	22.1	5.6	2.1	92.3	7.7
성	남자	1,365	69.3	22.4	5.6	2.7	91.7	8.3
	여자	1,017	71.3	21.8	5.7	1.2	93.1	6.9
지역	서울	468	71.8	20.3	6.6	1.3	92.1	7.9
	부산/경남/울산	200	77.0	17.0	4.0	2.0	94.0	6.0
	대구/경북	340	69.1	24.7	4.1	2.1	93.8	6.2
	인천/경기/강원	630	71.6	20.8	5.6	2.1	92.4	7.7
	광주/전라	434	67.3	23.5	6.2	3.0	90.8	9.2
	대전/충청	312	65.7	26.3	6.1	1.9	92.0	8.0
연령	9-12세	765	75.8	18.6	4.2	1.4	94.4	5.6
	13-15세	785	66.9	24.3	7.0	1.8	91.2	8.8
	16-19세	808	68.2	23.5	5.6	2.7	91.7	8.3
	무응답	26	65.4	19.2	7.7	7.7	84.6	15.4
학년⁵⁹⁾	초등학생	751	76.7	17.8	4.0	1.5	94.5	5.5
	중학생	792	65.0	25.5	7.4	2.0	90.5	9.4
	인문계고	594	69.0	23.9	4.9	2.2	92.9	7.1
	전문계고	247	69.6	20.2	6.5	3.6	89.8	10.1
학급성적	못함	575	68.7	21.0	7.0	3.3	89.7	10.3
	보통	1033	68.6	23.2	6.5	1.6	91.8	8.1
	잘함	538	73.2	22.5	3.0	1.3	95.7	4.3
	무응답	238	73.5	19.3	4.6	2.5	92.8	7.1
최근 교육여부⁶⁰⁾	있음	1393	72.4	19.9	6.1	1.6	92.3	7.7
	없음	982	66.8	25.5	5.0	2.7	92.3	7.7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15	65.1	26.0	6.0	2.8	91.1	8.8
	보통	1413	69.6	22.5	6.2	1.7	92.1	7.9
	부유함	521	72.0	20.9	4.4	2.7	92.9	7.1
	무응답	235	74.0	19.1	4.7	2.1	93.1	6.8
현재 흡연⁶¹⁾	전혀 아님	2196	72.3	21.3	4.9	1.5	93.6	6.4
	하루 1-5개비	105	49.5	30.5	15.2	4.8	80.0	20.0
	하루 6-10개비	20	50.0	35.0	15.0	-	85.0	15.0
	하루 11-19개비	26	38.5	23.1	15.4	23.1	61.6	38.5
	하루 한갑이상	28	28.6	46.4	3.6	21.4	75.0	25.0
현재 음주⁶²⁾	전혀 아님	1975	73.3	20.3	5.0	1.4	73.6	6.4
	한달 1-2회	339	57.2	30.7	8.6	3.5	87.9	12.1
	일주일 1-2회	39	46.2	30.8	12.8	10.3	77.0	23.1
	거의 매일	26	38.5	38.5	3.8	19.2	77.0	23.0

59) $\chi^2 = 32.724$, $df=9$ 유의도 .000

60) $\chi^2 = 15.752$, $df=3$ 유의도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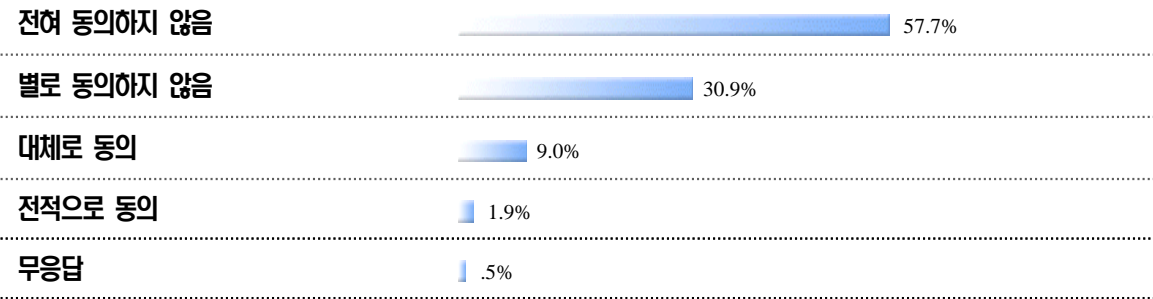
61) $\chi^2 = 174.341$, $df=12$ 유의도 .000 $r = .209$, 유의도 .000

62) $\chi^2 = 104.035$, $df=9$ 유의도 .000 $r = .179$, 유의도 .000

6. 마약류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 10대 학교 청소년 10명중 9명 정도(88.6%)가 ‘또래들이 호기심으로 시험 삼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을 사용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흡연하는 집단과 현재 음주하는 집단에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주장 의견>



-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은 정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일수록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개인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았음. 다만 전적으로 동의하는 집단은 충분히 인식하는 집단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 주장 의견과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⁶³⁾

사회적 위험성 인식(%) 주장 동의(%)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전혀 동의 않음	28.6	<u>39.3</u>	25.4	6.7
별로 동의 않음	18.7	<u>44.3</u>	30.5	6.5
대체로 동의	19.2	<u>42.1</u>	28.5	10.3
전적으로 동의	<u>37.0</u>	21.7	23.9	17.4
개인적 심각성 인식(%) 주장 동의(%)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전혀 동의 않음	35.2	<u>42.8</u>	19.1	2.9
별로 동의 않음	19.0	<u>52.1</u>	25.5	3.4
대체로 동의	21.5	<u>46.3</u>	25.2	7.0
전적으로 동의	<u>39.1</u>	23.9	19.6	17.4

63) $\chi^2 = 46.902, df=9$ 유의도 .000 / $\chi^2 = 106.520, df=9$ 유의도 .000 $r = .138$,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성적이 좋을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또래들이 호기심으로 시험 삼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을 사용해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주장 동의 여부		사례 수	전혀 동의 않음	별로 동의 않음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동의 않음	동의
전 체			58.0	31.0	9.0	1.9	89.0	10.9
성	남자	1,360	56.4	32.0	9.4	2.2	88.4	11.6
	여자	1,015	60.2	29.9	8.4	1.6	90.1	10.0
지역	서울	466	60.5	30.3	7.1	2.1	90.8	9.2
	부산/경남/울산	200	59.5	30.5	8.0	2.0	90.0	10.0
	대구/경북	340	55.6	30.9	11.2	2.4	86.5	13.6
	인천/경기/강원	624	59.6	29.5	9.0	1.9	89.1	10.9
	광주/전라	434	61.3	28.6	8.5	1.6	89.9	10.1
	대전/충청	313	48.2	39.3	10.9	1.6	87.5	12.5
연령	9-12세	763	76.0	18.3	3.5	2.1	94.3	5.6
	13-15세	783	51.9	36.8	10.5	.9	88.7	11.4
	16-19세	805	47.5	37.1	12.7	2.7	84.6	15.4
	무응답	26	42.3	42.3	11.5	3.9	84.6	15.4
학년 ⁶⁴⁾	초등학생	749	76.5	18.2	3.1	2.3	94.7	5.4
	중학생	790	51.0	36.5	11.8	.8	87.5	12.6
	인문계고	592	44.6	40.0	13.3	2.0	84.6	15.3
	전문계고	246	56.5	31.3	7.7	4.5	87.8	12.2
학급성적 ⁶⁵⁾	못함	574	49.0	36.2	12.2	2.6	85.2	14.8
	보통	1030	58.0	31.5	9.1	1.5	89.2	10.6
	잘함	536	62.5	28.5	7.3	1.7	91.0	9.0
	무응답	237	70.0	22.4	4.6	3.0	92.4	7.6
최근 교육여부 ⁶⁶⁾	있음	1387	62.1	28.0	8.1	1.7	90.1	9.8
	없음	981	52.0	35.5	10.3	2.2	87.5	12.5
가정 경제상태 ⁶⁷⁾	어려움	213	55.9	28.6	12.2	3.3	84.5	15.5
	보통	1411	54.4	34.2	9.9	1.4	88.6	11.3
	부유함	519	63.0	27.2	7.3	2.5	90.2	9.8
	무응답	234	70.5	22.6	4.3	2.6	93.1	6.9
현재 흡연 ⁶⁸⁾	전혀 아님	2191	60.2	30.7	7.8	1.4	90.9	9.2
	하루 1-5개비	104	31.7	41.3	21.2	5.8	73.0	27.0
	하루 6-10개비	20	35.0	40.0	25.0	-	75.0	25.0
	하루 11-19개비	26	23.1	30.8	26.9	19.2	53.9	46.1
	하루 한갑이상	28	39.3	17.9	28.6	14.3	57.2	42.9
현재 음주 ⁶⁹⁾	전혀 아님	1971	61.7	29.7	7.0	1.6	91.4	8.6
	한달 1-2회	337	41.5	39.8	17.2	1.5	81.2	18.7
	일주일 1-2회	39	30.8	25.6	33.3	10.3	56.4	43.6
	거의 매일	26	26.9	26.9	23.1	23.1	53.8	46.2

64) $\chi^2 = 195.332$, $df=9$, 유의도 .000 $r = .181$, 유의도 .000

65) $\chi^2 = 45.097$, $df=9$, 유의도 .000 $r = -.114$, 유의도 .000

66) $\chi^2 = 24.349$, 유의도 .000

67) $\chi^2 = 41.168$, $df=9$, 유의도 .000

68) $\chi^2 = 150.161$, 유의도 .000 $r = .196$,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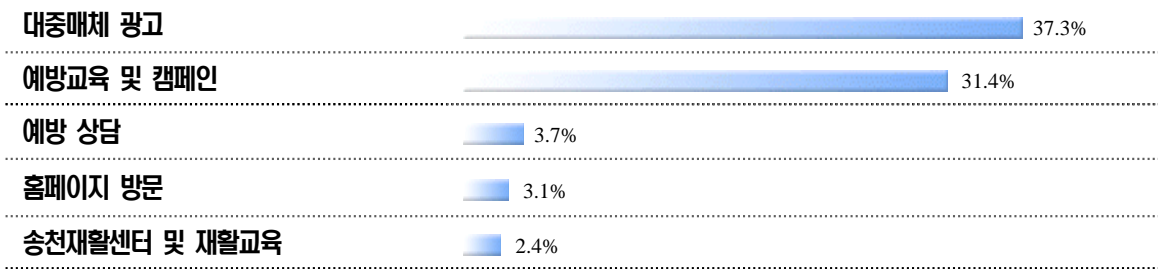
69) $\chi^2 = 180.937$, $df=9$, 유의도 .000 $r = .224$, 유의도 .000

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10대 학교 청소년 3명중 1명 이상(37.3%)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를 접촉해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31.4%)이 그 뒤를 이었음
- ‘마약류나 남용 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접촉도는 3.7%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은 3.1%, ‘중독자 재활을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에 대한 접촉도는 2.4%로 조사됨.

<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 ‘홈페이지 방문’, ‘예방상담’, ‘대중교육/캠페인’ 순으로 마약류의 사회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았음. 대중매체는 일반적인 효과는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인식변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재활교육의 경우 교육 이전에 문제 집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임

< 활동 접촉도와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⁷⁰⁾

사회적 위험성 인식(%) 활동 접촉도(%)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대중매체	24.9	42.6	27.6	4.9
예방교육/캠페인	26.3	42.9	26.4	4.4
예방상담	33.0	39.8	15.9	11.4
홈페이지 방문	37.0	42.5	8.2	12.3
재활교육	28.1	36.8	26.3	8.8

개인적 심각성 인식(%) 활동 접촉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대중매체	27.9	49.8	20.3	1.9
예방교육/캠페인	32.6	49.1	16.2	2.1
예방상담	34.1	42.0	12.5	11.4
홈페이지 방문	42.5	42.5	5.5	9.6
재활교육	50.9	31.6	7.0	10.5

70) $\chi^2 = 46.902, df=9$ 유의도 .000 / $\chi^2 = 106.520, df=9$ 유의도 .000 $r = .138$,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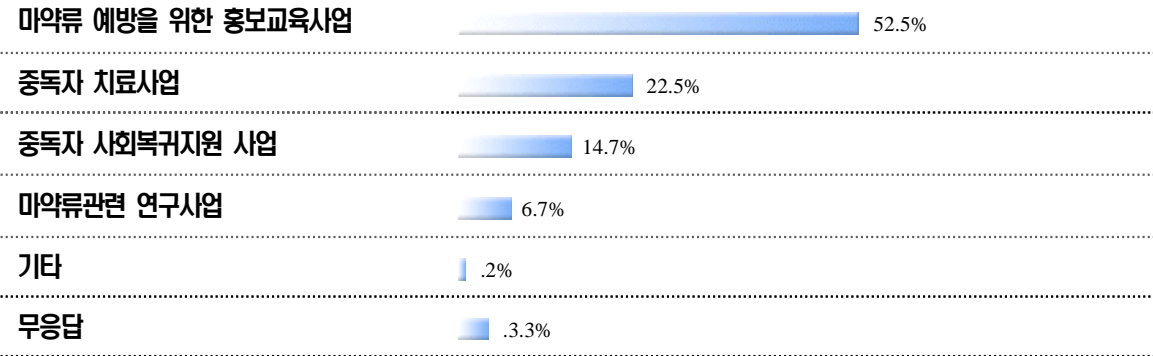
- ‘대중매체’의 경우, 인문계고(52.9%), 16-19세(46.1%), 대구/경북(40.5%), 학급성적 우수(43.5%)에서 상대적으로 접촉도가 높았고,
- ‘교육/캠페인’의 경우, 광주/전라(34.5%), 초등학생(35.1%),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39.4%),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가정경제가 부유할수록 상대적으로 접촉도가 높았고, 특히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과 음주하지 않는 집단이 하는 집단보다 접촉도가 높았음.
- ‘홈페이지’의 경우, 광주/전라(5.7%), 초등학생(5.6%), 9-12세(5.4%)에서 접촉도가 높았으며, ‘예방 상담’의 경우, 광주/전라(6.0%), 가정경제 어려움(4.6%),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접촉도가 높았음

		사례 수	홈페이지	대중매체	예방상담	교육/캠페인	재활교육
전 체			3.1	37.3	3.7	31.4	2.4
성	남자	1370	3.5	35.3	4.0	30.1	2.6
	여자	1018	2.5	40.1	3.2	33.1	2.1
지역	서울	470	3.0	34.9	5.3	32.1	4.5
	부산/경남/울산	200	.5	36.5	1.5	28.5	.5
	대구/경북	341	1.5	40.5	1.5	29.6	.3
	인천/경기/강원	631	2.5	36.6	2.5	33.1	1.9
	광주/전라	435	5.7	39.5	6.0	34.5	2.8
	대전/충청	313	3.8	36.4	4.2	26.2	3.2
연령	9-12세	766	5.4	25.7	5.2	34.3	4.7
	13-15세	787	2.4	39.5	3.6	30.9	1.1
	16-19세	811	1.5	46.1	2.2	29.6	1.4
	무응답	26	3.9	38.5	7.7	15.4	3.9
학년	초등학생	752	5.6	26.3	5.2	35.1	4.9
	중학생	794	2.5	36.6	3.8	30.2	1.4
	인문계고	596	1.2	52.9	2.2	32.6	.8
	전문계고	248	1.6	35.5	2.4	21.0	1.6
학급성적	못함	575	1.9	35.0	3.7	24.7	2.3
	보통	1034	1.8	34.7	2.5	30.2	1.5
	잘함	538	3.5	43.5	4.5	35.1	3.0
	무응답	243	9.9	40.3	7.0	44.0	5.3
최근 교육여부	있음	1394	4.2	39.2	4.6	39.4	3.0
	없음	986	1.3	34.5	2.3	20.0	1.5
가정경제상태	어려움	215	4.2	34.9	5.6	27.4	3.3
	보통	1413	1.2	37.2	2.6	29.2	1.1
	부유함	522	4.4	37.2	4.2	33.0	3.8
	무응답	240	10.0	40.4	7.1	44.2	5.8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97	3.0	38.3	3.6	32.4	2.2
	하루 1-5개비	105	4.8	35.2	6.7	22.9	3.8
	하루 6-10개비	20	-	10.0	-	15.0	-
	하루 11-19개비	26	3.8	26.9	3.8	19.2	3.8
	하루 한갑이상	28	3.6	10.7	-	17.9	3.6
현재 음주	전혀 아님	1976	2.8	37.4	3.7	32.1	2.3
	한달 1-2회	339	4.7	38.6	3.5	29.5	2.4
	일주일 1-2회	39	2.6	38.5	2.6	23.1	-
	거의 매일	26	-	15.4	3.8	15.4	3.8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10대 학교청소년 과반수(52.5%)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22.5%),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지원 사업’(14.7%),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6.7%)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



- 사업방향별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개인적 심각성 공감도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위험성을 덜 공감하는 집단에서 연구사업에 다소 높았고, 개인적 위험성을 덜 체감하는 집단에서 치료사업에 다소 높았음.

< 사업방향과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 >

사회적 위험성 인식(%) 사업방향(%)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홍보교육사업	25.5	40.1	28.2	6.2
사회복귀사업	22.4	44.0	25.6	8.0
연구사업	24.2	44.1	21.1	10.6
치료사업	24.8	39.5	28.3	7.4
개인적 심각성 인식(%) 사업방향(%)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홍보교육사업	30.0	46.3	20.6	3.1
사회복귀사업	25.3	49.7	22.2	2.8
연구사업	29.8	46.6	19.9	3.7
치료사업	29.3	41.8	24.4	4.5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향후 ‘마약류 예방을 위해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자(58.7%), 광주/전라(57.7%), 현재 흡연하지 않는 집단과 음주하지 않는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지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6.7%), 대구/경북(18.4%), 연령이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함.

사업방향		사례 수	홍보나 교육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연구사업	중독자 치료사업	기타
전 체			54.3	15.2	7.0	23.2	.2
성	남자	1315	51.1	16.7	8.1	23.8	.3
	여자	994	58.7	13.3	5.5	22.4	.1
지역 ⁷¹⁾	서울	458	52.8	13.3	12.7	21.0	.2
	부산/경남/울산	193	54.9	14.0	2.1	28.5	.5
	대구/경북	332	54.2	18.4	5.7	21.7	-
	인천/경기/강원	613	55.0	15.0	5.4	24.5	.2
	광주/전라	409	57.7	15.2	6.6	20.3	.2
	대전/충청	306	50.7	16.0	6.5	26.5	.3
	무응답						
연령 ⁷²⁾	9-12세	740	54.6	10.3	8.1	27.0	-
	13-15세	764	52.5	17.0	7.1	23.0	.4
	16-19세	782	56.0	18.4	5.6	19.7	.3
	무응답	25	52.0	8.0	12.0	28.0	-
	초등학생	727	55.3	10.0	8.4	26.3	-
학년 ⁷³⁾	중학생	768	50.5	16.9	7.6	24.7	.3
	인문계고	577	57.4	18.7	5.0	18.4	.5
	전문계고	239	56.5	17.2	5.4	20.9	-
학급성적	못함	551	54.4	16.0	6.4	23.0	.2
	보통	1007	53.8	15.2	6.4	24.4	.2
	잘함	525	54.7	15.2	7.6	22.1	.4
	무응답	228	55.7	13.6	9.6	21.1	-
최근 교육여부	있음	1345	54.9	15.4	6.8	22.8	.2
	없음	958	53.8	15.0	7.2	23.8	.2
가정경제상 태	어려움	208	50.5	15.9	10.1	23.6	-
	보통	1370	54.8	15.4	5.8	23.8	.2
	부유함	508	53.7	15.6	7.7	22.6	.4
	무응답	225	56.4	12.9	9.8	20.9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32	55.2	15.0	6.4	23.2	.2
	하루 1-5개비	103	53.4	16.5	9.7	19.4	1.0
	하루 6-10개비	18	38.9	11.1	16.7	33.3	-
	하루 11-19개비	26	34.6	15.4	19.2	30.8	-
	하루 한갑이상	23	26.1	34.8	13.0	26.1	-
현재 음주 ⁷⁴⁾	전혀 아님	1914	55.1	14.8	6.5	23.5	.2
	한달 1-2회	335	54.3	17.0	7.2	20.9	.6
	일주일 1-2회	36	36.1	25.0	13.9	25.0	-
	거의 매일	21	28.6	14.3	28.6	2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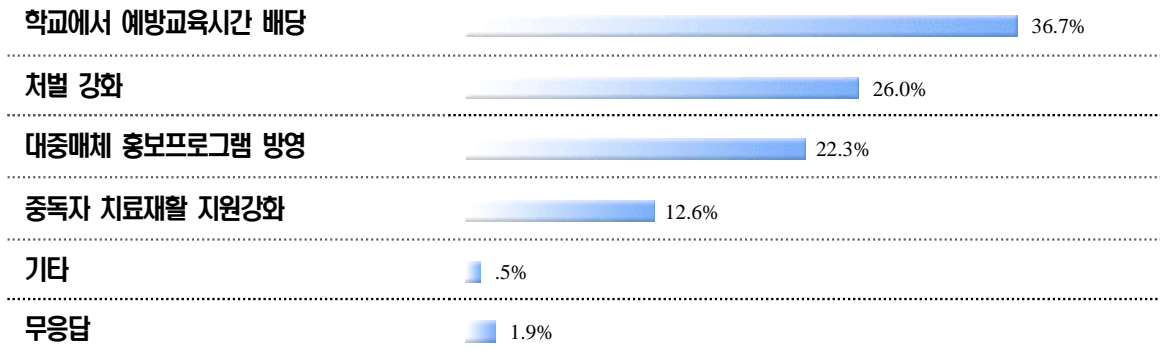
71) $\chi^2 = 45.296$, $df=20$, 유의도 .001
 72) $\chi^2 = 39.348$, $df=16$, 유의도 .001
 73) $\chi^2 = 43.940$, $df=20$, 유의도 .000
 74) $\chi^2 = 29.367$, $df=12$, 유의도 .003

6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7%)을 1순위로 꼽음.
- 다음으로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26.0%),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22.3%),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강화’(12.6%)의 순으로 확산 방지 방안을 제시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의 인식정도에 관계없이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을 통한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함.

< 방지방안과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 >

사회적 위험성 인식(%) 방지방안(%)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예방교육 배당	28.5	<u>39.0</u>	25.4	7.2
대중매체	21.4	<u>46.1</u>	27.1	5.5
치료재활강화	22.7	<u>38.7</u>	27.7	11.0
처벌강화	23.8	<u>39.9</u>	30.1	6.3
개인적 심각성 인식(%) 사업방향(%)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예방교육 배당	33.8	<u>45.3</u>	17.1	3.8
대중매체	23.7	<u>48.0</u>	25.4	2.8
치료재활강화	27.3	<u>44.7</u>	23.3	4.7
처벌강화	28.6	<u>44.7</u>	23.5	3.2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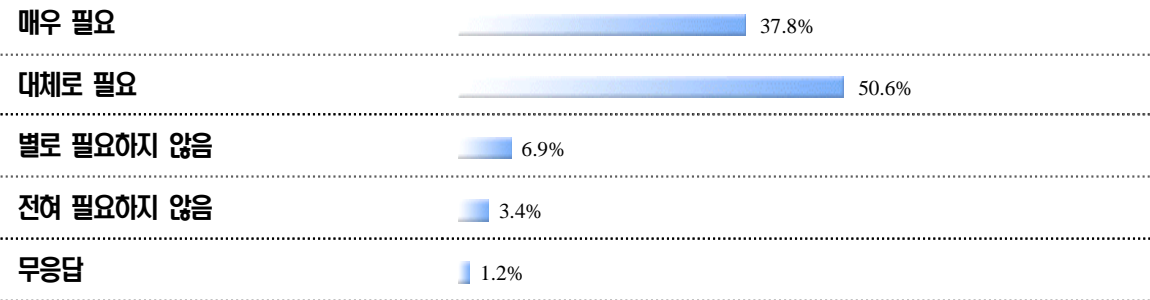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방안으로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광주/전라(43.3%), 학급성적이 낮을수록,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39.1%)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처벌 강화’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남성(27.7%), 인천/경기/강원(28.3%), 학년이 높을수록, 학급성적이 우수할수록, 현재 음주하지 않는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남

향후 방안		사례 수	예방교육 시간배당	대중매체 홍보프로 그램 반영	사회복지 지원강화	처벌강화	기타
전 체			37.4	22.7	12.8	26.5	.5
성	남자	1334	36.5	22.9	12.1	27.7	.7
	여자	1009	38.8	22.3	13.7	24.9	.4
지역	서울	461	36.7	24.9	10.4	27.8	.2
	부산/경남/울산	198	38.4	23.7	13.6	24.2	-
	대구/경북	337	30.6	27.0	15.7	26.1	.6
	인천/경기/강원	618	39.5	19.9	11.3	28.3	1.1
	광주/전라	425	43.3	19.5	13.4	23.8	-
	대전/충청	306	33.3	23.9	14.7	26.8	1.2
연령	9-12세	757	46.6	19.3	10.4	23.4	.2
	13-15세	775	35.0	23.1	12.9	28.4	.6
	16-19세	789	31.3	35.7	14.2	28.0	.7
	무응답	24	29.2	16.7	37.5	16.7	-
학년	초등학생	744	47.4	18.7	10.6	23.0	.2
	중학생	779	35.0	24.0	13.2	27.2	.5
	인문계고	583	28.3	27.4	13.6	29.5	1.3
	전문계고	239	36.4	19.2	16.3	28.0	-
학급성적	못함	561	39.9	22.6	15.7	21.0	.8
	보통	1020	36.3	22.6	12.2	28.5	.4
	잘함	530	33.0	22.8	11.7	31.5	1.0
	무응답	234	46.6	22.6	11.1	19.7	-
최근 교육여부	있음	1374	39.1	22.6	11.6	26.1	.7
	없음	962	34.9	23.0	14.7	27.0	.4
가정 경제상태	어려움	208	39.4	20.7	12.5	27.4	-
	보통	1390	35.6	23.2	14.0	26.5	.7
	부유함	516	36.6	22.3	10.9	29.7	.6
	무응답	231	48.5	22.5	10.4	18.6	-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65	37.1	23.0	12.5	26.9	.3
	하루 1-5개비	102	36.3	25.5	15.7	21.6	1.0
	하루 6-10개비	19	31.6	15.8	21.1	26.3	5.3
	하루 11-19개비	24	50.0	4.2	25.0	20.8	-
	하루 한 갑 이상	26	57.7	7.7	11.5	19.2	3.8
현재 음주	전혀 아님	1945	37.3	23.0	11.7	27.5	.6
	한 달 1-2회	332	36.7	22.6	16.0	23.8	.9
	일주일 1-2회	38	34.2	13.2	42.1	10.5	-
	거의 매일	25	60.0	12.0	12.0	12.0	4.0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10대 학교 청소년의 대다수(88.4%)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높은 공감을 나타냄.

<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을 체감하는 집단일수록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개인적으로 심각성 체감 정도에 따라 민간단체의 지원 정도가 달라짐을 보임.

< 민간단체 활동지원과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⁷⁵⁾

사회적 위험성 인식(%) 민간단체 지원필요(%)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매우 필요	32.2	<u>37.3</u>	23.9	6.6
대체로 필요	20.2	<u>44.7</u>	29.9	5.2
별로 필요하지 않음	20.6	<u>34.5</u>	30.3	14.5
전혀 필요하지 않음	23.2	<u>30.5</u>	22.0	24.4
개인적 심각성 인식(%) 민간단체 지원필요(%)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매우 필요	<u>41.9</u>	40.1	15.2	2.8
대체로 필요	21.7	<u>52.1</u>	23.8	2.4
별로 필요하지 않음	17.0	36.4	<u>40.6</u>	6.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8.3	<u>31.7</u>	20.7	<u>29.3</u>

75) $\chi^2 = 104.427$, $df=9$, 유의도 .000 $r = .127$, 유의도 .000 / $\chi^2 = 310.270$, $df=9$, 유의도 .000 $r = .251$,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민간단체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성(92.5%), 인천/경기/강원(92.0%), 9-12세(92.4%), 초등학생(92.0%), 최근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91.8%), 현재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현재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민간단체 지원		사례 수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불필요
전 체			38.3	51.2	7.0	3.5	89.5	10.5
성 ⁷⁶⁾	남자	1349	41.3	46.0	8.0	4.7	87.3	12.7
	여자	1010	34.4	58.1	5.6	1.9	92.5	7.5
지역 ⁷⁷⁾	서울	461	35.8	52.7	6.9	4.6	88.5	11.5
	부산/경남/울산	199	28.1	61.3	7.5	3.0	89.4	10.5
	대구/경북	337	38.0	49.3	9.5	3.3	87.3	12.8
	인천/경기/강원	625	40.3	51.7	4.8	3.2	92.0	8.0
	광주/전라	428	44.4	45.1	6.3	4.2	89.5	10.5
	대전/충청	311	36.7	52.1	9.3	1.9	88.8	11.2
연령 ⁷⁸⁾	9-12세	757	44.3	48.1	5.3	2.4	92.4	7.7
	13-15세	777	37.8	50.2	7.9	4.1	88.0	12.0
	16-19세	801	34.0	54.7	7.5	3.9	88.7	11.4
	무응답	26	15.4	65.4	15.4	3.9	80.8	19.3
학년 ⁷⁹⁾	초등학생	744	44.2	47.8	5.6	2.3	92.0	7.9
	중학생	783	36.9	49.9	8.3	4.9	86.8	13.2
	인문계고	589	35.3	54.7	6.5	3.6	90.0	10.1
	전문계고	245	32.2	57.1	8.2	2.4	89.3	10.6
학급성적 ⁸⁰⁾	못함	572	32.2	55.1	8.2	4.5	87.3	12.7
	보통	1024	36.7	53.3	6.9	3.0	90.0	9.9
	잘함	531	44.3	46.1	6.2	3.4	90.4	9.6
최근 교육여부 ⁸¹⁾	무응답	234	47.0	44.0	6.0	3.0	91.0	9.0
	있음	1377	42.0	49.8	4.9	3.3	91.8	8.2
	없음	975	33.0	53.3	9.9	3.7	86.3	13.6
가정경제상태	어려움	213	45.1	43.2	8.0	3.8	88.3	11.8
	보통	1398	35.1	54.4	7.2	3.3	89.5	10.5
	부유함	519	40.5	49.1	6.7	3.7	89.6	10.4
현재 흡연 ⁸²⁾	무응답	231	46.8	44.2	5.2	3.9	91.0	9.1
	전혀 아님	2178	38.8	51.5	6.7	3.0	90.3	9.7
	하루 1-5개비	103	35.9	52.4	7.8	3.9	88.3	11.7
	하루 6-10개비	20	25.0	60.0	15.0	-	85.0	15.0
	하루 11-19개비	26	34.6	38.5	7.7	19.2	73.1	26.9
	하루 한 갑 이상	28	17.9	42.9	17.9	21.4	67.8	39.3
현재 음주 ⁸³⁾	전혀 아님	1959	39.6	51.1	6.3	3.1	90.7	9.4
	한 달 1-2회	337	33.5	53.1	9.8	3.6	86.6	13.4
	일주일 1-2회	38	28.9	47.4	10.5	13.2	76.3	23.7
	거의 매일	25	16.0	44.0	20.0	20.0	60.0	40.0

76) $\chi^2 = 41.544$, 유의도 .000

77) $\chi^2 = 33.529$, $df=15$, 유의도 .004

78) $\chi^2 = 36.014$, $df=12$, 유의도 .000

79) $\chi^2 = 28.512$, $df=9$, 유의도 .000

80) $\chi^2 = 28.088$, $df=9$, 유의도 .001

81) $\chi^2 = 34.955$, $df=3$, 유의도 .000 $r = .101$, 유의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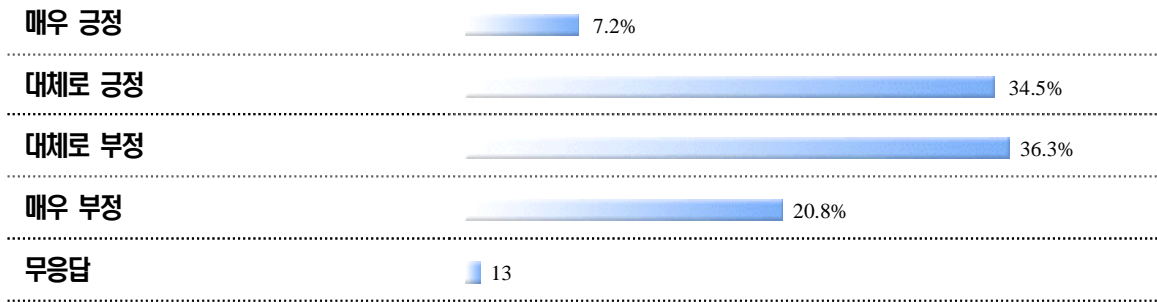
82) $\chi^2 = 60.730$, $df=12$, 유의도 .000 $r = .113$, 유의도 .000

83) $\chi^2 = 50.322$, $df=9$, 유의도 .000 $r = .116$, 유의도 .000

3.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에 자원봉사 참여 의사

- 10대 학교 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41.7%)만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냄.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사에 대해 ‘참여하겠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자(46.2%), 인천/경기/강원(46.5%),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46.6%),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민간단체 자원봉사 참여 의사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심각성을 체감하는 집단일수록 민간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인적으로 심각성 체감 정도에 따라 민간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사가 달라짐을 보임.

< 자원봉사 참여의사와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교>⁸⁴⁾

사회적 위험성 인식(%) 참여 의사(%)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 못함	전혀 인식 못함
매우 긍정	<u>36.0</u>	30.8	25.6	7.6
대체로 긍정	27.9	<u>42.1</u>	25.4	4.6
대체로 부정	22.0	<u>44.2</u>	27.9	5.9
매우 부정	21.4	<u>36.5</u>	28.8	13.3

개인적 심각성 인식(%) 참여 의사(%)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
매우 긍정	<u>47.7</u>	34.9	13.4	4.1
대체로 긍정	35.0	<u>46.1</u>	16.5	2.4
대체로 부정	21.4	<u>50.9</u>	25.7	2.0
매우 부정	25.9	<u>39.8</u>	25.5	8.9

84) $\chi^2 = 63.937$, $df=9$, 유의도 .000 $r = .114$, 유의도 .000 / $\chi^2 = 134.890$, $df=9$, 유의도 .000 $r = .172$, 유의도 .000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사에 대해 ‘참여하겠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자(46.2%), 인천/경기/강원(46.5%), 최근 예방교육 받은 집단(46.6%), 연령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39.2%), 대전/충청(33.0%), 학급 성적이 낮음(36.4%)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자원봉사 여부		사례 수	매우 긍정	긍정	부정	매우 부정	긍정	부정
전 체			7.3	34.9	36.8	21.0	42.2	57.8
성 ⁸⁵⁾	남자	1348	7.6	31.6	36.0	24.9	39.2	60.9
	여자	1010	6.9	39.3	37.8	15.9	46.2	53.7
지역	서울	463	6.3	37.4	36.7	19.7	43.7	56.4
	부산/경남/울산	200	4.0	33.5	39.5	23.0	37.5	62.5
	대구/경북	338	6.8	32.8	37.0	23.4	39.6	60.4
	인천/경기/강원	624	7.9	38.6	33.5	20.0	46.5	53.5
	광주/전라	426	9.6	35.7	33.6	21.1	45.3	54.7
	대전/충청	309	7.1	25.9	46.0	21.0	33.0	67.0
연령 ⁸⁶⁾	9-12세	754	11.0	39.9	32.2	16.8	50.9	49.0
	13-15세	777	5.3	34.4	37.3	23.0	39.7	60.3
	16-19세	803	6.0	31.4	40.3	22.3	37.4	62.6
	무응답	26	-	15.4	42.3	42.3	15.4	84.6
학년 ⁸⁷⁾	초등학생	740	11.1	40.3	32.0	16.6	51.4	48.6
	중학생	784	5.9	33.8	36.4	24.0	39.7	60.4
	인문계고	590	5.1	29.7	42.9	22.4	34.8	65.3
	전문계고	246	5.7	35.0	37.8	21.5	40.7	59.3
학급성적 ⁸⁸⁾	못함	571	7.2	29.2	38.4	25.2	36.4	63.6
	보통	1026	6.4	37.1	38.5	17.9	43.5	56.4
	잘함	532	7.5	35.3	33.3	23.9	42.8	57.2
	무응답	231	10.8	38.1	33.3	17.7	48.9	51.0
최근 교육 여부 ⁸⁹⁾	있음	1377	8.3	38.3	35.9	17.5	46.6	53.4
	없음	974	6.0	30.2	38.1	25.8	36.2	63.9
가정경제상태 ⁹⁰⁾	어려움	214	10.3	32.7	34.6	22.4	43.0	57.0
	보통	1401	4.9	35.3	38.4	21.5	40.2	59.9
	부유함	517	11.0	33.7	35.0	20.3	44.7	65.3
	무응답	228	11.0	37.7	32.9	18.4	48.7	51.3
현재 흡연	전혀 아님	2176	7.0	35.1	37.3	20.5	42.1	57.8
	하루 1-5개비	104	11.5	36.5	31.7	20.2	48.0	51.9
	하루 6-10개비	20	5.0	30.0	45.0	20.0	35.0	65.0
	하루 11-19개비	25	12.0	28.0	32.0	28.0	40.0	60.0
	하루 한갑이상	28	7.1	28.6	17.9	46.4	35.7	64.3
현재 음주	전혀 아님	1955	7.0	36.2	36.6	20.3	43.2	56.9
	한달 1-2회	338	9.2	28.7	38.5	23.7	37.9	62.2
	일주일 1-2회	38	5.3	23.7	39.5	31.6	29.0	71.1
	거의 매일	26	3.8	38.5	26.9	30.8	42.3	57.7

85) $\chi^2 = 33.277$, 유의도 .000

86) $\chi^2 = 56.825$, $df=12$, 유의도 .000

87) $\chi^2 = 53.843$, $df=9$, 유의도 .000 $r = .104$, 유의도 .000

88) $\chi^2 = 28.847$, $df=9$, 유의도 .001

89) $\chi^2 = 34.471$, $df=3$, 유의도 .000 $r = .118$, 유의도 .000

90) $\chi^2 = 33.114$, $df=9$, 유의도 .000